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만연되고 있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잘 이겨나가며 난관이 닥칠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힘을 얻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온전한 자는 명철하나라 (잠언 17:27)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63호 2011년 12월 10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능력보다 자질, 지혜, 책임감, 포괄성 먼저!

CT, 미 사회 크리스천리더들이 제안하는 2012대선 쟁점 소개

“경제적 회생 능력”, “적자 축소” 등이 내년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일 발간한 ‘2012 세계경제 대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 세계 29개국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이 과거와 같은 화려한 성장전략이 아니라 적자 축소나 긴축 등 위기 극복방안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내년 미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 등이 대선을 치르고 중국은 10월 공산당대회에서 지도부의 70%를 교체한다.

잇따르는 주요국 선거는 세계 경제를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코노미스트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며 “5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운데 내년 말까지 권력을 유지할 것이 분명한 지도자는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뿐”이라고 내다봤다. 194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에 발목을 잡힌 오바마나 유럽 위기로 궁지에 몰린 사르코지도 정권을 내줄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미국의 2012년 대통령 선거의 주된 쟁점은 암담한 경제와 실업 및 급증하는 정부 예산적자가 되리란 것이 통념이다. 그런 문제들이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뉴스로 대서특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념은 무난해 보인다.

그러나 복음주의 진영에서만은 경제 불황을 타개하고 국제질서를 바로 잡을 차기 대통령의 자격을 능력이 아닌 자질로 본다. 다시 말해서, 미국 사회의 싱크 탱크로 활동하고 있는 각계 전문가들의 해안을 통해 지혜, 책임감 그리고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통령이 선출돼야 한다고 제안한다(The Defining Issue of the 2012 Presidential Race? : Observers consider what Christians should prioritize in the upcoming election).

먼저 미 안보정책연구소가 전망하는 2012년 국제 정세를 살펴보자. 현재처럼 사태가 진행될 경우 2012년 가을에는 중동과 세계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가오는 폭풍을 알리는 몇 가지 전조가 있다.

무아마르 카다피가 죽자 오바마 행정부는 오바마의 지도력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그의 ‘후방 주도’ 정책이 부시의 전쟁과 개입 정책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요란하게 선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리비아 과도 정부의 수반인 무스타파 압둘잘릴이 차기 정부의 사리아 추종 입장

을 거듭 선언함에 따라 오바마의 화자찬은 빛을 잃었다. 즉 압둘잘릴은 이슬람의 압제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정치, 군사 법률 원칙인 샤리아에 대한 충성을 거듭 다짐한 것이다.

튀니지에서는 이슬람주의 정당인 엔나다가 최초의 자유총선에서 다수표를 얻었다. 미 행정부는 엔나다가 온건한 종교정당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미국은 터키의 집권당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했다. 불행히도 최근 들어 터키 집권당이 본색을 드러내 정부의 세속주의를 포기하고 더욱 공격적인 외교정책을



2012대선은 경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복음주의진영에서는 자질을 우선으로 삼고 있다

펴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이슬람주의의 모태인 무슬림 형제단이 총선을 통한 공식 집권도 하기 전에 정책목표를 채택하고 있다. 임시군사정부는 소수 인구집단인 콥트파 기독교도 살해를 선동한다. 또 가자의 무슬림 형제단 지지 세력에 대한 무기 공급을 끊고 알카에다 같은 테러단체들이 시나이반도를 이스라엘 공격의 발판으로 이용하도록 허용한다.

이라크의 누리 알말리키 총리는 이라크 미군의 주둔을 연장시키려는 미 행정부의 시도를 좌절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란

의 의압이이며 알말리키의 연정 참여가 결정된 목타다 알사드르는 미군 철수 후 보안조치를 지원할 예정인 미국 방위산업 용역업체 직원들을 추방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다.

실상가상으로 신흥 중국과 권도중래(捲土重來)를 떠드는 러시아가 미국에 맞서 세력을 키우고 멕시코는 내전을 향해 치달리고 있다. 마약 밀매범들의 무법천지가 된 멕시코에서는 이슬람 테러단체인 헤즈볼라의 동맹세력들이 미국 침투를 노리고 있다.

(3면으로 계속)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및 평신도지도자세미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미주크리스천신문에서는 제 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를 한국 금란교회(김홍도 목사 시무)에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더 희석되어 가는 오늘의 교회들에게 말씀의 활력을 새롭게 불어넣는 세미나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통회 자복하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Take His Word, Return to Lord!

▶ 일 시 2012년 4월 17일(화) ~ 4월 20일(금)

▶ 세미나장소 한국 금란교회 ▶ 숙소 워커히 호텔

■ 참석대상

- 1) 현재 시무중인 한인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
- 2) 평신도 지도자(장로, 권사, 집사)

■ 등록금

목사·선교사: **조기등록 150달러** (*선착순 마감)
(2011년 10월~2012년 2월 29일)
(2012년 3월 1일 이후 등록 200달러)
평신도지도자: 200달러
한국현지등록: 50불

■ 연락처

NY: 노선희 전도사 TEL(718)886-4040
FAX, (718)358-7789 이메일:sunny@kapcq.org
LA: 이성자 전도사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항공권/관광 문의 : 유 여행사 (718)463-9500



2면

소비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높은 뜻 담아야



3면

12월, 리더의 재생산 일어나야 한다!



7면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
조일규 목사(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16면

인터뷰
김태오 목사, 사라짐 사모, 한동희 집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 전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Scholarship 을 지급함)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2012년 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제출서류 ◇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 5) 명함판 사진(2"×2")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 1) 원 서 교부처 : 본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2년 1월 27일(금) 오후 6시
- 3) 입 학 시 험 : 2012년 1월 28일(토) 오전 11시, 면접 : 오후 2시
- 4) 영 성 훈 련 : 2012년 1월 30일(월) - 2월 1일(수) 오후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학감 / 교무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718)463-7047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시론

"가룟 유다의 전성기였던 한해를 보내면서"



김기원 목사 (장위제일교회)

비교문화에 병든 '가인'의 살인은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되며 가룟 유다의 "현실출세주의, 유물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 전성기였다고 생각되어지는 한해였습니다.

이 해도 마지막 달 캘린더를 하루에도 몇 번씩 보면서 착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를 막론하고 구별 없이 터졌다 하면 "돈" 문제였다는 사실은 아무도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부자관리"가 어려서부터 다른 계명을 다 지켜왔지만 "너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는 말에는 심히 근심하고, 결국 따르지 못한 것같이(눅 18:18-27). 교계에도 여전히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전통은 심상하게 계승되고 있음을 제감합니다(눅 16:15).

성경에도 보면 다른 죄는 깨닫고 잘도 회개했는데 물질문제의 죄는 좀처럼 회개치 아니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물주의, 맘몬주의의 유혹이 얼마나 강하고 끈질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질문제가 있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성경은 이미 모든 회답이 완벽하게 교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는 것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을 더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사회의 문제가 80-90%가 물질문제가 있어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 일어나는 사건, 사고, 범죄 행위임을 볼 때 성경적 경제관 정착이 절실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처럼 결국 욕심 때문에 살인까지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은 생명보다 인격보다 더 중요히 여기는 데서 일어나는 황금만능주의가 부정과 부패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교훈, 이적과 기사를 3년간 현장에서 체험하고 살면서도 돈을 흠치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결국은 돈 받고 예수를 팔게 된 것처럼 물질의 유혹이 이렇게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명예욕도, 정욕도, 야심도 나이가 들면 시들어 가지만 욕심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했지만 그가 낳지 아니한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새해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자기 것을 아무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자 없이 스스로 나누는 전성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부터입니다...



소비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높은 뜻 담아야

CT, 로라 하트만 교수의 크리스천소비윤리 원리 소개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부터 시작된 미국인들의 소비는 이제 "사이버 먼데이"(Cyber Monday)로까지 이어진다. 올해 온라인상에서 사이버 먼데이 매출은 오프라인을 상회할 정도이고, 크리스마스 시즌, 연말연시 등 불경기에 잔뜩 움츠러들었던 사람들은 모처럼 필요한 생필품이나 선물을 사는 등 모처럼 경기가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그리고 크리스천 소비자의 상관관계는 어떤가? 소위 소비문화에 대한 기독교문화적 논의와 그 해법의 모색은 오늘날 우리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나라를 일궈가야 할 교회 공동체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신학적 논점의 주제가 아닐 수 없다. 항상 성탄의 감사와 즐거움보다는 산타로 대변되는 성탄은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놓여진 선물의 크기가 주목받지, 2000년 전 말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의 성육신에는 그저 지나가는 할리데이의 풍경으로 강등되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리티투데이(Christianity Today, CT)는 일리노이, 어그스타나 대학 종교학 교수인 로라 하트만(Laura Hartman)을 통해 크리스천의 바람직한 소비 윤리를 점검한다. 그녀는 최근 소비주의에 대한 기독교 관점에서의 신간, "크리스천 소비자"(The Christian Consumer: Living Faithfully in a Fragile World)를 출간해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신학적 주제와 실례를 들어 건전하고 온전한 소비윤리를 제시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Black Friday, Cyber Monday, & the Christian Consumer: What a model for ethical consumption can look like).

소비자들에게 있어, 구매는 "도덕적인 결정"이 아니다. 또한 무엇이 필요해서 마켓이나 백화점에 가지만 충동구매가 구매를 부추긴다. 따라서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과정들이 단순한 구매에

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안적 공동체로서의 종교 공동체성"을 제시해야 한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종교가 사실상 자제를 가르치는 최선의 학교라고 선언"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생각의 훈련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무엇인가를 구매할 때, 가장 올바른 것을 구매해야만 보상 또는 종종 심리가 해결된다

하는 비극을 너무나 잘 알기에, 광고와 미디어는 소비자들에게 소비 심리를 계속 부추기게 되는 것이다.

만약 교회공동체가 건전한 소비 문화 창출에 나서지 않는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바로 소비는 '유사종

현대 소비자들, 미디어에 의해 조작된 마케팅으로 노예화 탐욕 허영 회피·창조질서에 순응·이웃사랑·미래 대비

도 숨어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비는 신분 과시와 사회적 과시로도 나타난다. 명품에 사족을 못 쓰고 목숨(?)을 거는 것도 직간접적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의 발로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과거에는 소비는 권력과 계급의 상징이었으나 산업화를 통해 소비의 민주주의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인정받을 정도로, 이제 소비는 원하는 물건을 소비할 수 있는 자유정신을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미디어에 의해 조작된 마케팅에 의해 오히려 의지가 자유롭지 못한 노예가 바로 현재의 소비자들이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보다 소비의 욕망이 더 크므로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한탕주의나 심지어 자살로 이어지는 아노미적 현상이 발생

서 교회공동체만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기훈련을 하게하고, 침착하게 집합적인 규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하트만 교수는 바람직한 크리스천 문화를 위해서는 1)죄를 피하고(탐욕이나 허영이 아닌) 2)창조질서에 순응하며 3)이웃을 사랑하며 4) 미래에 대한 대비라는 원리로 구매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 4가지 원리를 항상 생각해 "생각의 습관"을 낳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의 습관"으로까지 나아가야만 건전한 크리스천 소비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의 소비습관을 위에서 말한 4가지 원리에 비추어 보고 걸러내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습관은 단번의 결정이나

는 점이다. 42" LCD TV에 만족하다가도 60" 이상의 TV에, 해상도 780에 머물다가도 1080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종에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 보통 소비자들의 심리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이 소비주의가 가진 비극이다.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 구매하고 또 구매

교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소비행동에서 행복과 기쁨, 구원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교회가 건전한 소비문화 창출에 불리한 편이다. 그 이유는 소비사회에서 종교 역시 소비되는 상품이 되어 자신을 브랜드화하기 때문이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편집국장서리: 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8(광고국)
E-mail: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SINCE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MASTER of Mission Languages with Concentration in TESOL
MASTE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Athletic Missio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MASTER of Divinity M.Div.
D.Mi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Leadership, Christian Social Work, Church Music,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원격교육(On-Line) 강의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직장을 떠나지 않고 학위 취득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 F-1 VISA 발급 (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 교육)
3. 수시 입학 가능.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 E-mail. usa@midwest.edu

EM 사역자(part-time) 및 반주자 청빙

밴쿠버 빌라델비아교회에서는 개혁주의 신앙으로 Youth 그룹을 섬길 EM 사역자와 성가대 반주자를 청빙합니다.

자격(EM사역자)
- 1.5세, 2세 사역에 소명 있는 분
- 영어가 불편하지 않은 분
- 정규신학대학원(M.Div) 졸업 또는 2년 이상 마친 분

자격(반주자)
- 세례교인으로 피아노 전공자

제출서류 - 이력서 (공통)
- 목회소견서 (EM사역자)

접수마감일 - 총원시까지

보내실 곳
The Philadelphia Church of Vancouver (Rev. Kun Taek Lim)
9135 132St, Surrey, BC
V3V 5P6 CANADA

E-Mail: philachurch@naver.com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The Philadelphia Church of Vancouver
밴쿠버 빌라델비아교회
604-584-5780 / 604-584-5717(Fax)
<http://www.pcov.org>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45개국어
복음
전도
신문
입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내가 맞는 성탄의 기쁨

한 사람의 삶의 사역은 장편소설이다. 인생은 누구나 이런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간다. 삶을 사는 동안 한 번도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부모님께 감사드려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생을 반쪽

만 경험한 불행한 사람일 수 있다. 단기간 공부하러 온 C 집사와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적바림을 조금씩 꺼내보이는 사람처럼 자신의 과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부산의 자갈치 시장의 비릿한 내음을 맡진 풍

기는 어조로... 그는 집안 형편 때문에 어렵게 고등학교를 마치고 군에 입대했다고 한다. 제대하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다. 자신도 몰랐는데 병명은 신장염이라는 의사의 선언. 방치하게 될 때 심각해지고 투석을 하든지 아니면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무직에 전혀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의 선언은 청천벽력같은 음성이었다. 그런 이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우연히 교회를 찾게 되었고 주님께 간절히 살려달라고 간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즐기던 말술과 단절하게 되었다. 그러나 병은 그대로였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내의 집에 있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네 살 연상의 간호사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와 교제를 하게 되었지만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교제였다. 그저 누님 정도로만 생각하는 관계였다. 그런데 어느 날 간호사 누님으로부터

결혼 제의를 받게 되었다. 자신은 돈도 없고 학력도 고졸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누님과 결혼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공부는 하면 되고 말은 내가 준비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 때 스물네 살이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너 정신이 있느냐고 따귀를 두 차레나 맞아 야했다. 그는 사실 걸어나는 병원이라고 할 만큼 온 몸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간도 종양이 있고 혈압은 가족력으로 물려받았고, 통풍도 있고, 신장도 나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님의 요청으로 결혼을 했고 그가 마련한 돈으로 전셋집을 얻어 들어가 살게 되었다.

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왜 우냐고 물었다니, 당신의 차트를 보니 혈액형이 같은 B형인 것을 보고 울었다. 당신에게 신장을 하나 떼어줄 수 있게 되어 감사하여 울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나 그 눈물이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눈물은 많지 않다.

그는 지금 시부모님의 병약할 때문에 매달 허리가 휘게 약값을 지불해야 하고 또 홀로계신 친정어머니의 고질병에 대한 약값 지원 등으로 여유가 조금도 없다고 한다. 그래서 단기유학도 자신의 자동차를 팔아 왔다고 그는 결혼하고 아내의 도움으로 음악대학에서 공부하게 될 즈음 아내가 다니는 병원이 부도가 나서 2년 동안 월급을 받을 수 없었다고. 그래서 전셋집을 월세 집으로 낮추었고, 거기서 더 작은 집으로, 또 거기서 아이가 돌아나 있는 상황에서 단칸방으로 이사하면서 도 불행이나 원망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고 한다. 그는 월급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다행히 교수님과 함께 교회를 순례하게 되었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모두 주심으로 근근이 버티게 되었다.

그 후 대학 4학년이 되었을 때 합창단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소원하던 첫 월급을 받게 되었다. 고생만 하는 아내, 너무나 소중한 아내의 손에 빛나는 첫 월급을 뿌듯한 마음으로 쥐어주자 아내는 말했다. 이것은 소중한 "첫 열매입니다."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 수 있으니 주님께 드립시다!"

푸/ 른/ 초/ 장

박상훈 목사
(승동교회)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노래가 모두 다섯 편 나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리아의 노래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떠난 후 마리아는 벨리 그의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비록 먼 길이었지만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얼른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서 세 가지로 천사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였습니다. 둘째,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던 세례 요한의 태동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불렀던 노래를 통해서였습니다.

흔히들 마리아의 노래를 가리켜서, "마그니피캇"(Magnificat)이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 마리아의 노래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바로 "마그니피캇"입니다. 그 뜻은 오늘 본문 46절에 있는 대로 "찬양하며"입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기록된 성탄의 노래들은 전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탄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성탄의 정신은 한 마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일입니다. 성탄의 근본정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2:2에 나오는 동방박사들도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성탄을 맞을 때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마리아의 노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배의 대상입니다. 본문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입니다. "내 영혼이 나를 찬양하며"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주, 곧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아울러 "보라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다"입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 주는 자라고 일컬으리다"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받은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결코 마리아가 복을 주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분명히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한 마디로 마리아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그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높이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신성화해서, 마리아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림이

나 동상을 보면, 예수님보다는 오히려 마리아가 위주입니다. 천주교가 그렇게 된 이유는 마리아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주교는 마리아에 대해서 다섯 가지의 교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교리들입니다.

첫째, 마리아는 인간의 원죄에 오염되지 않고 태어났다. 둘째, 마리아는 일생토록 단 한번의 죄도 짓지 않았다. 셋째, 마리아는 평생토록 동정녀로 지냈다. 넷째,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다섯째,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통치한다. 만일 이러한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마리아는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당연히 예배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

대해서는 마리아를 높이지 아니하셨습니다. 눅11:28을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를 높이셨습니다. 마리아는 결코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노래를 통해서, 예배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눅4:8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둘째로, 예배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마리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눅1:46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눅1:47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 마리아는 그의 입술로 예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영혼, 곧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29:13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입과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요4:24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나의 예배는 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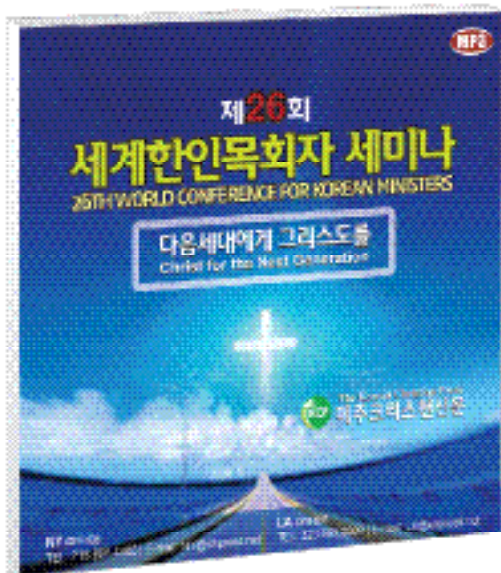
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때 마리아는 메가급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 단어를 "찬양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기타의 경우는 "찬송하다"라고 번역된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기뻐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갈리아오"(agalliao)입니다. 이 단어 역시 열광적인 기쁨을 뜻할 때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는 그 자신이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복이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할 때 마리아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는 그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고 부르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셋째로, 예배의 이유입니다. 본문에서 마리아는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는 시간적으로 구별됩니다. 첫째 이유는 현재에 해당합니다. (13면으로 계속)

“마리아의 노래” 누가복음 1장 46-56절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의 CD(MP3) 발매

본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지난 5월 2일부터 5일까지 라스베이거스 사우스 포인트 호텔에서 개최한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및 평신도세미나의 강의 20편 전체가 한 장의 CD(MP3)로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에 그리스도를"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18명의 전문 강사들이 복음이 위협받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긴급 당면과제인 2세대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시키며, 축소되어야 하는 주일학교의 부흥과 복음 전파에 대해 고민하여 대안을 제시했다. 바쁜 사역에 대한 신학적 접근으로부터 실재적 교육현장 접근까지 엄선된 17강의(목회자, 평신도 각각)와 3회의 저녁영성집회 전 강의를 모두 담았다. 이번에는 특히 큰 호평을 받았던 평신도지도자 강의도 CD로 제작했다. 총 소요시간 40시간, 3개의 CD(목회자강의 2개, 평신도지도자 1개)로 묶어 가격은 30달러. 강사는 김홍도, 지용수, 소강석, 박지호, 황의영, 여은서, 송윤걸, 이영선, 김만형, 김성덕, 조일규, 홍인기, 송규식, 김해천, 박현남, 김승연, 장영춘 목사님 강의 순서대로 되어있다.



주문: LA: 601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 (323) 665-0009, Fax. (323) 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가격: 30달러
(미국내 우송료 포함,
타 국가는 우송료 별도)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여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선물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영문: _____
영 어:	_____	_____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선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쪽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써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 (323) 665-0009, Fax. (323) 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Fax. (718) 886-0074
E-mail: ny@chpress.net

교육칼럼

주일학교교육의 교육과정 세우기(5)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교회력에 의한 연간교육 세우기 12월 과정을 서술하겠습니다. 원래 교회력은 대강절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캘린더를 중심으로 설명하다보니 1월부터 시작하여 오늘은 12월에 대한 교육과정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력에서 당연히 맨저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교회 설립의 동기와 교회를 세우신 분과 또한 교회를 통해 그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력의 출발이 대강절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성탄주일 4주 전 주일을 대강절로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대강절을 교육하는 것은 성탄절만큼이나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강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 성탄절의 의미도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력으로는 대강절에서 성탄절까지 4주 밖에 되지 않지만 구약역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지를 헤아려 본다면 참으로 길고 긴 역사였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기다림의 시작으로부터 간단히 정리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인류의 고난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죄의 결과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들 가인과 아벨 형제사이에 시기

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돌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또한 학개2장 6-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

교 학생들로 하여금 찾게 하고 얼마나 기나긴 역사였으며 얼마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했었는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합니다. 또한 죄악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신을 하던 그 백성들이 자기들을 구원할 때 시야를 얼마나 기다렸는가를 발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대강절에 대한 교육을 전개해가야 하겠습니다. 대강절의 뜻이 무엇인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질문을 통해 접근해가는 것이 대강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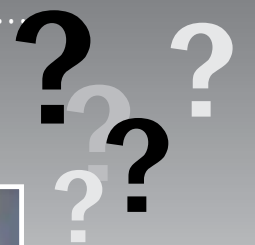
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반드시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었지만 또 다른 면을 아이들이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어려운 말이기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터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시며 그 법을 세우시면 결코 변치 않으시고 그 법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죄의 삯은 사망이요”(롬6:23)라는 명확한 언도를 전제하고 죄의 비중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복음이요, 영인의 후손 즉 남자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 죄가 없으신 그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아픔과 배고픔과 슬픔과 고통, 모욕과 수치와 버림과 매 맞음과 찢기심과 죽으시기까지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반드시 오셔야만 했다는 이 위대한 복음을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일로 큰 은혜를 체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신학적으로 성육신하신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SPC0316@yahoo.co.kr

Q: 저는 교회의 안수집사로서 목회자를 돕고 섬기는 은사가 있을 줄은 은사 세미나에서 확인했습니다. 목회하시느라 수고하시는 목사님을 돕고 싶는데 왜 목회자가 목회하다가 “탈진하기 쉬운지” 알고 싶습니다. -LA에서 윤집사

A: 요 근래에 어디론가 멀리 사라지고 싶은 충동을 자주 느끼는가? 신경질이 늘어가고 마음이 점점 편협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한숨 쉬는 적은 없는가? 아무리 잠을 자고 쉬어도 계속 피로함을 느끼지 않는가? 마음속에 소리 없는 분노와 좌절이 쌓여가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심각한 탈진상태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탈진현상은 자기관리의 균형(Balance in self-Management)이 깨어져서 자기통제 판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 윌로우크릭교회 빌 하이벨스(Bill Hybels) 목사는 인간의 삶을 통제하는 운전석에는 세 가지 계기판이 있는데 육체적 계기판(Physical gadget), 영적 계기판(spiritual gadget) 그리고 감정적 계기판(Emotional gadget)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적 상태는 매일 잘 먹고 충분히 쉬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하고 영적인 상태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감정적 계기판이 있는 것은 새까맣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이민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과 부담감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구

육체적-영적-감정적 계기판의 균형 맞춰야

조의 목회는 너무나 복잡하고 사람들의 요구가 옛날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기는 불가능합니다. 대개 사람의 감정은 어느 정도까지 가면 터져 버리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의 경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계속되는 설교와 사람 만나는 일(대부분이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음)에 투자하기 때문에 밤이 되면 거의 감정의 우물이 바싹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간신히 쉼이 맡아 하다가 또 일주일 내내 사람들을 만나고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성공공부나 설교를 준비하는 일에 뛰어들다 보면 감성지수가 거의 바닥을 기게 됩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 라도 “아, 이제는 어디론가 멀리 가서 사람상대하지 않고 신나고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리더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잘 나가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탈선 일보직전의 기차와 같이 비틀거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빌 하이벨스의 경우는 취미생활을 개발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어릴 때 중고 보트를 타고 항해하는 것을 즐겼던 그는 그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또 목사로서가 아닌 인간 대 인간, 친구 대 친구로서의 삶의 모든 것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과 정기적으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민목회를 거의 30년째 하면서 안식년도 제대로 없고 일 년에 정기적인 휴가조차 교인들에게 사치스럽게 보이는 오늘 이민목회 현실에서 어떻게 탈진을 이길 수 있는지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월요일 오후에는 탁구장에서 목회자들과 2-3시간 정도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합니다. 또 친구 목사님들과 저녁식사로 나누면서 이런 저런 말도 하고 교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일 년에 한 번은 휴가를 얻어 교회 일을 잊어버리고 일주일간 쉬는 시간을 잡습니다.

교회력 출발은 대강절부터 시작, 성탄만큼 중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터득 필요

와 미움으로 결국 혈육을 죽이는 참극으로까지 나타났으며 계속해서 사람들의 전적인 타락과 완전한 부패로 소망이 없는 어두움의 역사가 계속되어져왔습니다.

인간 속에 거짓과 간음과 미움과 살인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세워 하나님의 일, 즉 구속에 그릇되게 사용하시고자 하셨지만 그 백성들의 배신과 범죄로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런 중에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 오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아니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이사야, 학개, 말라기 등 선지자들을 통해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장차 그 백성을 구원할 메시야가 오실 것을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사야40장 1-5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에 담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

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드디어 때가 왔고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이 나타났는데 이는 이사야서 7장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9장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라고 실로 인류역사에 가장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주일학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강절의 의미는 ‘오실’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에 대하여 그 진정한 의미를 새김은 물론 머지않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리는 기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정의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른들보다는 훨씬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응시하시는 분으로 유도해야겠지요.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응시한다고 해서 안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진실로 회개할 때 죄를 기억하지도 않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지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사고와 자녀들이 스스로 찾고 발견케 한다면 교육과정으로 매우 성공적인 교육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육신에 대한 이론이나 설명은 고학년이 아니면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불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교육도 학년에 따라 알맞게 접목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임마누엘의 주, 구원의 주를 기다렸지만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심판주로 오실 메시야를 기다리는 절기가 곧 대강절을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바로 다음 주일을 대강절로 지키면서 비록 4주간 밖에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기다림이 한갓 크리스마스선물 꾸러미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아름다운 천국, 예수님과 함께 할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는 믿음을 품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호에서는 성탄절에 관한 교육과정 세우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여 다 모여라!

ROCHESTER'11 WWW.GKYM FEST.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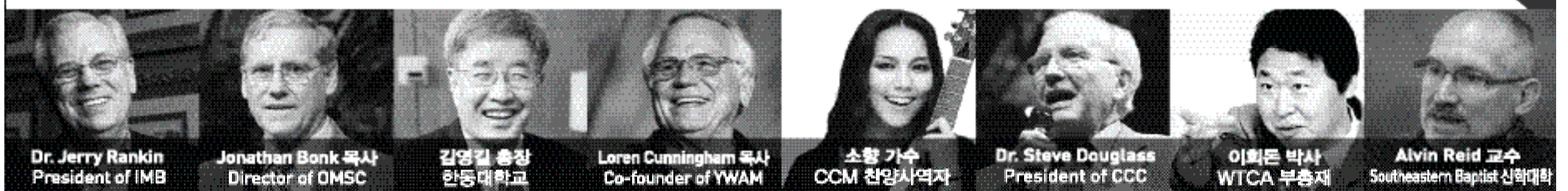
세계 청년 선교 축제

DEC 27-30

“열방을 향한 아름다운 발걸음”

- ▶ 주관/주최 : GAP USA(Global Assistance Partners)
- ▶ 날 짜 : 12월 27일(화) ~ 30일(금)
- ▶ 장 소 : Rochester Riverside Convention Center
- ▶ 대 상 : 18세 이상 청년 및 대학생
- ▶ 등록비 : 12월 15일까지 \$250
목회자 (사모) \$100, 3박 4일 숙식포함

- ▶ 등록문의 : GKYM USA
T. 551-486-0100 (USA)
T. 647-828-0515 (CANADA)
e-mail: roc11info@gkymfest.org
*온라인 등록 www.gkymfest.org



Dr. Jerry Rankin
President of IMB

Jonathan Bonk 목사
Director of OMSC

김명길 총장
한동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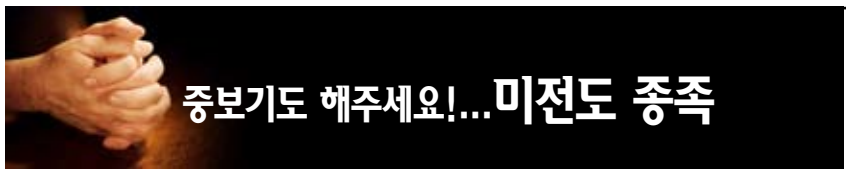
Loren Cunningham 목사
Co-founder of YWAM

소향 가수
CCM 찬양사역자

Dr. Steve Douglass
President of CCC

이희준 박사
WTCA 부총재

Alvin Reid 교수
Southeastern Baptist 신학대학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필리핀의 남부 사마(Southern Sama)



필리핀의 남부 사마족은 술루(Sulu) 군도안에 있는 따와이-따와이(Tawi-Tawi) 섬 집단에 거주하고 있다. 남부 사마족은 대규모의 사마(Sama)집단 중 한 부족 집단이다. 그들은 사마 바자우(Sama-Bajau)어의 시부투(Sibutu) 방언을 사용한다. "사마(Sama)" 또는 "사말(Samal)"이라는 말은 필리핀 중심지역부터 보르네오

해안의 동쪽, 그리고 술라웨시(Sulawesi)에서 인도네시아 동쪽의 로티(Roti)에 자리 잡은 사마-바자우(Sama-Bajau)어를 사용하는 모든 다양한 민족들 무리를 일컫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정치적 단결의 부재로 상당히 나뉘어진 부족들이다. 각각의 사마족들은 방언과 지리적 위치를 통해 정체성을 가진다. 사마족은 원래 술루의 북동쪽에 있는 섬들과 민다나오의 남서쪽을 가로지르는 해안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A.D. 천년기 초기에 중국무역이 팽창되면서 사마족도 이주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거의 대부분이 주로 술루 군도를 따라 카가얀(Cagayan) 술루, 서쪽의 보르네오

(Bornéo) 해안 등 남쪽과 서쪽으로 이동했다.

삶의 모습

사마족은 낚시질이 주요 경제활동인 바다의 부족이다. 그들은 또한 항해 무역과 약간의 농업에 종사한다. 전지역에 걸쳐서 '코프라'-COPRA(코코넛 기름이 많은 코코넛 속을 말린 것)가 주요 현금 작물이다. 하지만 코프라 사업의 소유주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은 COPRA 판매만으로 전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 그래서 무역이 또한 사마족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이 된다. 역사적으로 해상민족들은 배사람으로서의 항해 기술, 그리고 건어물, 해산, 진주, 조개, 다른 상품의 공급자로서 역할을 해왔다.

사마족의 거주지들은 길게 뻗은 해안가의 보호지역을 따라 자리잡은 집단주택 형태로 밀집지역을 구성하는

데 어떤 집들은 바로 바다 근처에 세워졌는가 하면 또 다른 곳에선 해변가를 따라 위치해 있다. 만약 물이 넘으면 그들은 판자나 좁은 다리로 연결을 한다. 지면 또는 만조(HIGH WATER) 수위 위로 1-3m 높이의 기둥을 세운 집안에는 대개 부엌이 딸린 직사각형 방이 하나있다.

근처에 위치한 가까운 친족으로 관계에 있는 여러 가족들이 모여 다시 'TUMPUKS(집단)라 불리는 큰 집단을 이룬다. 촌락안의 가정들 중 한 가족의 우두머리가 톰폭스(TUMPUK)의 대변인이 된다. 예를 들면 톰폭스는 집단 성원이 모두 한 모스크(이슬람교 사원)에 소속되는 이슬람의 '교구'와 동일한 개념이다.

직물을 짜고 도기를 매매하는 것은 여성의 직업이고, 어업, 보트 제작, 철 제조는 본래 남성의 직업이다. 농사와 상업에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참여하

다. 전통 무용과 노래, 퍼쿠션(PERCUSION-타악기의 일종)과 실로폰 음악, 염색한 옷차림, 음식 달걀, 목재 조각 등이 사마족을 대표하는 것들이다.

신앙

사마족은 거의 모두 수니(SUNNI)파 이슬람교도이다. 종교적인 사안에 식견을 가진 이만들(IMANS)과 모스크(MOSQUE) 임원들은 빠기(PAQI) 또는 빠깅(PAKI)이라고 불린다. 그들은 모든 중요한 행사와 종교적 고문 역할을 맡는다. 금요기도는 이슬람성원 본당에서 수행되는데 한 주간의 최고조로 삼는 때이다. 또한 해마다 종교 달력을 따라 라마단-이슬람력의 9월(이슬람교의 매년 단식월)과 모하메드(MOHAMMED)의 탄생일을 축하한다.

사마족은 여전히 그들의 토속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즉, 죽은 영들은 자신들의 무덤 근처를 떠돌면서 살아있

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원한다고 믿는다. 실제로 몇몇 무덤들이 기적적인 일을 일으키는 힘의 원천으로 보고된 적도 있다. 일년중 SHAABAN 달 동안은 죽은 영혼(ROH)이 현재 세계로 돌아오는 것을 신이 허락한다고 믿으며, 이때 그들을 존경하기 위해 살아있는 이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기도를 드리며 무덤을 깨끗이 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1970년대 초 이래, 술루 군도는 많은 정치적 불안정 경험했다. 잇따른 탄압은 사마족에게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등지로의 대량 이주를 가져왔다. 오늘날까지 이슬람교 극단주의자들은 여전히 아주 활동적이며, 대량 살인과 유괴를 자행하며 필리핀 군대에 대항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남부 사마족에 주님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플로리다 지역 PCUSA 교회 중 40% 탈퇴 고심

올해 PCUSA(미국장로교) 교단이 동성애자에 대한 목사 안수를 허용한 후 소속 교회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 지역 교회들도 탈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지 PCUSA 소속 교회 중 40%가 탈퇴를 심각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로리다 노스팜비치 제일장로교회는 지난달 30일 교인 1천여명 이상이 모인 자리에서 교단 탈퇴를 논의했으며, 추후 또 모임을 가지기로 결정했다. 현재로서는 탈퇴 찬성 교인수가 늘면서 탈퇴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회 관계자인 켈 커비 씨는 지역언론 '팜비치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탈퇴를 고려하는 이유에 대해 "동성애 성직자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최근 몇 년 간 교단이 개혁주의의 신앙노선을 벗어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커비 씨는 "곧 플로리다 지역의 PCUSA 교단 소속 40% 교회가 탈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주변 지역에 있는 58개 교회 중 10개 교회(노스팜비치제일장로교회 포함)가 교단 탈퇴를 위한 중대한 결정을 준비하는 단계"라고도 덧붙였다.

점등식 가진 오바마대통령 "진짜 빛은 예수"

1일 미국 백악관 앞 엘리스 광장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열려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시즌을 알렸다. 1만7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축제 분위기를 즐겼으며, 오바마 대통령도 부인인 미셸 오바마와 딸 사샤, 말리아, 장모인 메리언 로빈슨과 동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오늘밤 우리는 단지 점등식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 되신 아기에 영광을 돌리려고 모였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천사들이 기뻐하고 목자들과 먼 곳의 왕들을

그 분께 이끌었다"면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현현"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하나님 사랑의 가르침은 전 세계를 돌고 세대를 거쳐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 수백만의 미국인들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다"며 "(이 가르침은) 우리가 누구이든, 어디에서 왔든, 어떻게 예배하든지 간에 이 같은 연휴 기간에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메시지"라고 전했다.

이번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신앙적인 발언을 길게 한 것은, 지난 추수감사절 연설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데 따른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또 "지난 30년간 자리를 지켰던 나무가 작년 눈보라로 쓰러지면서, 올해는 26피트 크기의 콜로라도 주 푸른 가문비나무가 새로운 크리스마스트리로 대체됐다"고 말했다.

매년 12월 첫번째 주에 열리는 '내셔널 트리' 행사는 1923년 칼빈 쿨리지 대통령에 의해 처음 시작됐으며 올해로 89회를 맞았다. 이날 점등식에서는 영국 출신 마샤 엠브로시우스와 컨트리 가수 로디니 옛킨스, 원리퍼블릭밴드, 빅 타임 러시 등 유명 뮤지션들이 출연, 축제 분위기를 한층 높였다.

미 동성애자들, 자선냄비 보이콧 운동

미국에서 구세군이 동성애 반대 입장을 취한다는 이유로 동성애 옹호단체들이 자선냄비 보이콧 운동을 펼치고 있다. 동성애자 옹호 블로그 '빌레리코 프로젝트'에서 빌 브라우닝 씨는 "연휴가 다가오면서 구세군이 각종 가게 앞에서 성금을 모으고 있다. 만약 당신이 동성애자 권익을 옹호한다면, 자선냄비를 그냥 지나치길 바란다. 구세군은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한 차별 입장을 밝혀 온 역사를 갖고 있다"고 썼다.



'구세군 보이콧(Boycott The Salvation Army)'이라는 제목의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이미 2000명 이상이 추천한 상태로, 페이지의 구체적 설명에는 "구세군은 더 이상 자선 단체가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정치집단이자 보수적 기독교를 촉진시키는 복음주의 교회"라고 쓰여 있다.

시카고에 위치한 리베레이션 네트워크 공동창립자 앤디 타이어 씨는 이번 보이콧 운동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 "구세군 내에서는 성경 해석에 기반해, 동성애자들이 구세군 사역자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차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구세군 대신 무종교성을 띤 단체에 기부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구세군 내셔널커뮤니티리레이션스 비서인 조지 후드 씨는 이같은 보이콧 운동에 대해 "구세군의 동성애자 반대 입장은 신학적인 견해다. 그 점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을 것"이라고 명백히 했다. 구세군 관계자 조지 후드 씨는 "동성애 옹호단체들이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보이콧 운동을 벌여오고 있지만 모금액에 별다른 영향은 주지 못했다"면서 "지난 3년 동안 매년 성금은 전년도의 최고 기록을 깨고 있으며, 지난해 구세군은 2년 전보다 5% 증액된 1억4천2백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전했다.

후드 씨는 "보이콧 운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유감"이라며 "구세군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을 포함해 구세군이 돕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돕기를 거절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세르비아, '온라인서구매하는 이동식 교회' 등장

세르비아에서 새로운 방식의 교회 개척(?)이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으로 주문해 스스로 설치 가능한 이동식 교회와 등장한 것. 이러한 교회는 실내 실외 디자인 회사인 Mancic Granit사의 창립자이자 대표인 Svetislav Mancic가 개발해 판매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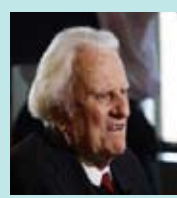
평균적으로 15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교회는 구매자의 필요에 따라 디자인 제작되고 완성 후 함께 트럭으로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배달된다. 도착한 교회를 설치하는 데 드는 시간 10여분 가량. 전기만 연결하면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미니 교회가 된다.

교회의 기본 가격은 1만6천 달러이며 구매자가 선택한 자체 종류에 따라 그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주문을 받기 전에 회사측은 세르비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교파인 세르비아정교회로부터 교회 건축에 대한 승인과 축복은 물론, 건물이 교회의 규례와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받는다. 여러 편리함 때문에 이동식 교회에 관심을 보이는 현지 교인

들이 늘고 있고 이미 주문도 상당히 이뤄졌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빌리 그레함 목사, 병세 점차 회복 중

폐렴 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은 빌리 그레함 목사가 지난 11월 30일 현재 안정을 되찾고 있다. 올해 93세인 그는 기침과 코막힘, 약간의 열로 인해 병원을 찾았으며 기본 검사와 엑스레이 진료를 받았다. 병원 방문 당시 그는 밝은 표정을 띠고 있었지만 추가 증세 발현을 우려해 밤새 병원 신세를 지야 했다.



지난 10년간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그는 올해 5월에도 폐렴 증세를 보인 바 있지만 기도와 연구, 저술 작업을 함께 하며 회복했다.

그는 최근 자신이 쓴 저서 "Nearing Home"에서 "나이 든 사람 뿐 아니라 모든 이들이 죽음에 직면할 때, 왜 그들이 살아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상실을 극복하기 위한 영적 강함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그는 자신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95세까지 살게 해 주실 것"이라 말한 바 있다.

프랑스 교인들, 예수 폼파 연극에 분노

지난달 19일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프랑스 남부도시 툴루즈(Toulouse) 지역 가론느(Garonne) 극장 앞에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요즘 프랑스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스페인 연극 '골고타 피크닉'(Golgota Picnic)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태생 작가인 로드리고 가르시아(Rodrigo Garcia)는 이 연극에서 예수를 "미친 사람, 개, 약간의 자식" 등으로 묘사했으며, 기독교인들이 아동성범죄자로 고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파리스 관계자들은 "예수는 범의 지배하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툴루즈의 극장 매니저인 재키 오아용(Jacky Ohayon)도 "가르시아의 연극은 신성모독이 아니며 이미 아무 문제없이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상연 됐다"고 말했다. 작가인 가르시아도 "현대의 소비사회에서 발생하는 소극한 이미지들을 통해 예수의 삶을 묘사한 것은 현실의 반영"이라고 프랑스 신문 라 데페슈(La Depeche)에서 주장하기도 했다.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Christ for the Next Generation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를

주제: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를



조일구 목사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쉐마의 기독교 교육(5) (신명기 6장 4-9절)

3.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야만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인 아버지들의 위상이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얼마나 떨어졌는가 하면, 아버지가 아침에 아이를 깨우면 절대로 그냥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애를 깨울 때는 반드시 이렇게 말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애야, 엄마가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퇴근해도 쳐다보고는 인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보지 못해 소리치기를 "애! 아빠가 돌아오셨는데, 인사도 안하냐?" 그러자 소파에 늘어지게 누워 있던 아들 녀석이 한다는 말이 "먼저 본놈이, 먼저 인사하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잘 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부모의 권위부터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내는 이런 남편의 권위가 회복되도록 도와야만 할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미워하면 절대 자녀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 없는 법입니다. 유대

인들에게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에게 항상 축복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식사 때나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기회

가 있을 때마다 지금도 축복한다고 합니다. 축복하는 아버지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겁니까? 얼마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 겁니까? 내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 부모들처럼, 우리들 역시도 모범적인 가르치는 부모,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말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삶이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삶 전체가 자녀를 가르치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과연 그렇게 가르칠만한 실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늦게 믿은 이유도 있고, 또 부모가 가르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

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삶으로, 실천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늘 담배를 피우는 부모가 자녀에게 "너희는 담배피우지 마라" 그러면 그럼 교육이 되었습니까? 늘 술 먹고 행패부리는 부모가 "너는 술 먹으면 안 돼" 그것도 교육이 되었습니까? 부모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자녀들에게는 신앙생활 잘하라는 것이 교육이 되었습니까?
한국의 어떤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분에게는 외동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녀석이 죽어도 교회를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어느 주일날 아침에 결판을 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장로님이 아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타이르다가 이제는 협박도 하는 겁니다. "이 녀석아, 내가 교회를 안 나가니까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같겨야, 안 같겨야... 안 나가면 너 혼날 줄 알아" 하면서 이불을 거꾸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 녀석이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하는 말이 "아버지, 아버지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장로를 그만 두든지, 아니면 이중생활을 그만 두시고 바르게 좀 살아 보세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여러 곳에서 읽고 보고 들었습니다. 그중 금방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야기 하나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 김평욱 목사님이십니다. 그 분이 쓴 "웃기시는 성령님"이란 자전적 서적을 읽어보면 참 감동적이고 은혜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목회

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 가르치면 나도 배우고 같이 한번, 함께 노력해 보라라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를 잘 만나면 훌륭한 학생이 되는 것처럼 부모를 잘 만나야만 그 자녀도 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 잘 가르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방향과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교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부모가 될 수 있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좋은 스승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들을 많이 둔 어머니가 있었답니다. 아들들만 키워서 그런지 어머니의 말투가 무척이나 거칠었습니다. 무엇을 먹을 때는 "빨리 쳐먹어라", 부를 때에도 "아! 이놈아!" 잘못했을 때는 "나가 댕겨라..." 이런 식의 상스러운 말들을 많이 썼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말에 익숙해지며 자랐습니다. 하루는 학교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과일을 깎아 대접했습니다. 선생님은 혼자 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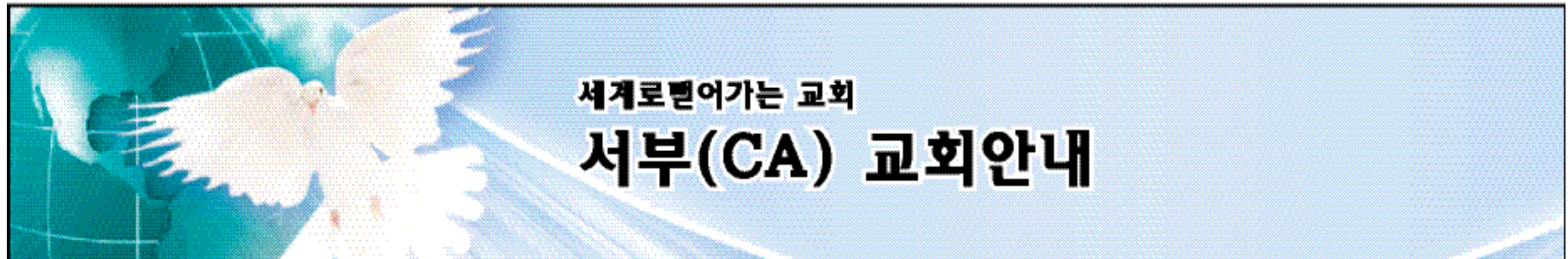
대로 살게 하리라" 그렇게 굳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록펠러 어머니의 교훈을 삼고해 봅시다.

- 1) 하나님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보다 이상으로 섬겨라.
- 2) 목사님을 하나님 아버지 다음으로 섬겨라.
- 3) 주일 예배는 가능하면 본 교회에서 드려라.
- 4)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십일조 주머니로 하라.
- 5)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 6) 아침에 하루의 목표를 세우고 기도도 시작하라.
- 7) 일 마친 저녁에는 반성의 기도를 꼭 드려라.
- 8) 아침에는 날마다 성경말씀을 읽어라.
- 9)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와라.
- 10)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가서 앉으라.

이것이 금세기 최고의 거부물 만든 록펠러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록펠러(John D. Rockefeller, 1839-1937)는 저 유명한 포브스 조사에 의하면 당시 순자산 규모 3,183억 달러에 이르는 역사상 최고 부자에 이르렀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석유회사를 운영하면서 1주일에 100만불 이상의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저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비롯한 12개의 대학을 설립하여 세웠고, 특별히 저 유명한 시카고 대학은 개교 100년도 못되어서 52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한 명문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리버사이드 교회를 비롯한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록펠러 어머니처럼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아름다운 믿음을 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전수를 통하여 신앙의 아름다운 계보를 만들어 가지고 록펠러와 같은 그런 멋진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

말씀으로 가르치고 믿음 전수해 신앙의 계보 만들어야 자녀교육은 부모가 행동의 본 보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병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월, 수, 금요일) 규모: 200명 www.gmsachurch.org Tel: (714) 225-6540, Fax: (714) 225-6538 5839 Knott Ave., Suite 100, CA 92629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권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9:30 (월, 수, 금요일) 규모: 200명 www.nasunchurch.org / www.nscg.org Tel: (951) 613-4480, Fax: (951) 613-4484 1750 N. Edgemoor St., CA 92607	나성열린문교회 담임목사: 박현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9:30 (월, 수, 금요일) 규모: 200명 www.nasunchurch.org Tel: (951) 613-4480, Fax: (951) 613-4484 1750 N. Edgemoor St., CA 92607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이경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9:30 (월, 수, 금요일) 규모: 200명 www.nasunchurch.org Tel: (951) 613-4480, Fax: (951) 613-4484 1750 N. Edgemoor St., CA 92607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9:30 (월, 수, 금요일) 규모: 200명 www.nasunchurch.org Tel: (951) 613-4480, Fax: (951) 613-4484 1750 N. Edgemoor St., CA 92607		
남가주리디미교회 담임목사: 김요셉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9:30 (월, 수, 금요일) 규모: 200명 www.nasunchurch.org Tel: (951) 613-4480, Fax: (951) 613-4484 1750 N. Edgemoor St., CA 92607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권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9:30 (월, 수, 금요일) 규모: 200명 www.nasunchurch.org Tel: (951) 613-4480, Fax: (951) 613-4484 1750 N. Edgemoor St., CA 92607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9:30 (월, 수, 금요일) 규모: 200명 www.nasunchurch.org Tel: (951) 613-4480, Fax: (951) 613-4484 1750 N. Edgemoor St., CA 92607	디아스포라선교회 담임목사: 권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9:30 (월, 수, 금요일) 규모: 200명 www.nasunchurch.org Tel: (951) 613-4480, Fax: (951) 613-4484 1750 N. Edgemoor St., CA 92607	드림교회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9:30 (월, 수, 금요일) 규모: 200명 www.nasunchurch.org Tel: (951) 613-4480, Fax: (951) 613-4484 1750 N. Edgemoor St., CA 92607	리하브라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9:30 (월, 수, 금요일) 규모: 200명 www.nasunchurch.org Tel: (951) 613-4480, Fax: (951) 613-4484 1750 N. Edgemoor St., CA 9260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9:30 (월, 수, 금요일) 규모: 200명 www.nasunchurch.org Tel: (951) 613-4480, Fax: (951) 613-4484 1750 N. Edgemoor St., CA 92607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송영병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9:30 (월, 수, 금요일) 규모: 200명 www.nasunchurch.org Tel: (951) 613-4480, Fax: (951) 613-4484 1750 N. Edgemoor St., CA 92607	방주선교회 담임목사: 박동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9:30 (월, 수, 금요일) 규모: 200명 www.nasunchurch.org Tel: (951) 613-4480, Fax: (951) 613-4484 1750 N. Edgemoor St., CA 92607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손인식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9:30 (월, 수, 금요일) 규모: 200명 www.nasunchurch.org Tel: (951) 613-4480, Fax: (951) 613-4484 1750 N. Edgemoor St., CA 92607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임진배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9:30 (월, 수, 금요일) 규모: 200명 www.nasunchurch.org Tel: (951) 613-4480, Fax: (951) 613-4484 1750 N. Edgemoor St., CA 92607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아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9:30 (월, 수, 금요일) 규모: 200명 www.nasunchurch.org Tel: (951) 613-4480, Fax: (951) 613-4484 1750 N. Edgemoor St., CA 92607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장재경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9:30 (월, 수, 금요일) 규모: 200명 www.nasunchurch.org Tel: (951) 613-4480, Fax: (951) 613-4484 1750 N. Edgemoor St., CA 92607	세계비전 교회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9:30 (월, 수, 금요일) 규모: 200명 www.nasunchurch.org Tel: (951) 613-4480, Fax: (951) 613-4484 1750 N. Edgemoor St., CA 92607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9:30 (월, 수, 금요일) 규모: 200명 www.nasunchurch.org Tel: (951) 613-4480, Fax: (951) 613-4484 1750 N. Edgemoor St., CA 92607	사상조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9:30 (월, 수, 금요일) 규모: 200명 www.nasunchurch.org Tel: (951) 613-4480, Fax: (951) 613-4484 1750 N. Edgemoor St., CA 92607	샌디에고 영락교회 담임목사: 김병학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9:30 (월, 수, 금요일) 규모: 200명 www.nasunchurch.org Tel: (951) 613-4480, Fax: (951) 613-4484 1750 N. Edgemoor St., CA 92607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용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9:30 (월, 수, 금요일) 규모: 200명 www.nasunchurch.org Tel: (951) 613-4480, Fax: (951) 613-4484 1750 N. Edgemoor St., CA 92607	임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한용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9:30 (월, 수, 금요일) 규모: 200명 www.nasunchurch.org Tel: (951) 613-4480, Fax: (951) 613-4484 1750 N. Edgemoor St., CA 92607	오렌지카운티제임스장로교회 담임목사: 임영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9:30 (월, 수, 금요일) 규모: 200명 www.nasunchurch.org Tel: (951) 613-4480, Fax: (951) 613-4484 1750 N. Edgemoor St., CA 92607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권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9:30 (월, 수, 금요일) 규모: 200명 www.nasunchurch.org Tel: (951) 613-4480, Fax: (951) 613-4484 1750 N. Edgemoor St., CA 92607
원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임용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9:30 (월, 수, 금요일) 규모: 200명 www.nasunchurch.org Tel: (951) 613-4480, Fax: (951) 613-4484 1750 N. Edgemoor St., CA 92607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9:30 (월, 수, 금요일) 규모: 200명 www.nasunchurch.org Tel: (951) 613-4480, Fax: (951) 613-4484 1750 N. Edgemoor St., CA 92607	인랜드교회 담임목사: 박진원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9:30 (월, 수, 금요일) 규모: 200명 www.nasunchurch.org Tel: (951) 613-4480, Fax: (951) 613-4484 1750 N. Edgemoor St., CA 92607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9:30 (월, 수, 금요일) 규모: 200명 www.nasunchurch.org Tel: (951) 613-4480, Fax: (951) 613-4484 1750 N. Edgemoor St., CA 92607	창대교회 담임목사: 이준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9:30 (월, 수, 금요일) 규모: 200명 www.nasunchurch.org Tel: (951) 613-4480, Fax: (951) 613-4484 1750 N. Edgemoor St., CA 92607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9:30 (월, 수, 금요일) 규모: 200명 www.nasunchurch.org Tel: (951) 613-4480, Fax: (951) 613-4484 1750 N. Edgemoor St., CA 92607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 655-0008 Fax: (323) 655-0048 N.Y.: Tel: (212) 859-4330 Fax: (212) 859-0374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67. 무너진 기초 다시 쌓기(사 58:12):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vs. 셈, 함, 아벳?

인종차별 문제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민감하지만 입 밖에 내기 어려운 뜨거운 감자다. 그러나 성경과 관련된 과학은 이 문제에서도 우리가 올바른 답을 갖도록 돕고 있다. 여러 인종들이 섞여 있는 곳에서 강연을 할 때가 가끔 있는데 성경은 나에게 자유함을 주었다. 어느 집사님은 히스패닉 종업원들을 많이 두고 있는데 창조과학 강연을 통해 인종에 대해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직접 들었다.

미국에서는 노예가 흑인이었다. 1863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인권에 대한 인식이 식기 시작하면서 인종차별적인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말았다. 특별히 인종차별의 구실이 없어진 상황에서 진화론은 큰 역할을 하였다. 흑백이 동등하지만 섞이지 못하도록(분리하도록) 하는 짐 크로우(Jim Crow) 법이 1876년에 만들어졌다. 1896년 대법원은 Plessy vs. Ferguson의 재판을 통해 인종분리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짐 크로우 법을 옹호해 흑인과 백인을 갈랐다. 이 법은 1965년에 폐지될 때까지 미국에 인종차별 문화를 형성하게 하는 법적인 제도가 되었다.

인종차별에 기름 부은 진화론...성경의 자의적 해석도 한몫 인류는 모두 아담에게서 노아에게서 나왔으므로 한 형제



흑인의 조상은 누구?

성경과 과학은 셈, 함, 아벳이 언어나 피부색에 상관 없이 현 인류 모두의 조상이라고 말한다.

남침례교와 폐지를 주장하는 북침례교로 나뉘었다.

현대과학은 인종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 재미있는 통계가 있다. 1985년에 조사한 통계(Lieberman et al. 1992)인데, 여러 분야에 있는 1200명의 과학자들에게 생물학적인 인종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생물학자(16%), 발달심리학자(36%), 인류학자(41%), 문화인류학자(53%)의 순서로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인종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통계자료를 보면 진짜 과학을 하는 과학자일수록 생물학적인 인종이 있다는 주장을 거부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진화론이 과학자들에게, 특별히 참 과학이 아닌 역

사과학 분야에서,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생물학적으로 다른 인종이라 함은 서로 교배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결혼하여 자녀를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종이란 단어는 사용해서는 안 될 말이다. 2000년대 초반에 끝난 인간유전지지도(Human Genome Project)의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 간의 DNA 정보 차이는 언어나 피부색에 상관없이 약 0.12%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계를 통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Nature 2004년 9월 30일자) 현 인류의 공통 조상은 언어와 피부색과 살고 있는 지역에 상관없이 5000년 전의 최초 조상에서 유래하였다. 이 놀라운 결과는 인류의 최초 조상이 수십만-수백만 년 전에 존재했었을 것이라 주장과 크게 다른 것이다. 이 연구 결과는 현 인류의 최초 조상인 노아가 BC 2950년경에 출생했다는 성경 기록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인류는 한 혈통이라는 주장(창9:19; 10:32)이나, 하와가 모든 산자의 조상이란 주장(창3:20)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성경의 역사사 사실이라면 하나의 인류가 어떻게 인종이라고 불리는 피부색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서로 완전히 다른 언어들과 나라와 민족들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생겨나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대답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성경의 역사를 신뢰하지 않는 세속 과학자나 역사가들에게는 인종과 언어와 민족의 기원은 수 수째끼로 남아 있고 영원히 풀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창조에서 시작해서 노아홍수의 심판을 통해 인류의 수가 8명이 되었고 다시 인구가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노아홍수 후 약 100년 만에 언어가 가족별로 혼합하게 되어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흩어짐이 인종과 민족과 나라가 아주 짧은 기간에 형성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세속학자들은 한 인류가 어떻게 격리되었을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인종이나 언 어들을 설명하지 못한다. 생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집단이 아주 작고 격리되었을 경우에만 새로운 특징이 빠르게 나타난다. 불과 2-300백 년 만에 450종의 다양한 순종 개들을 만들어낸 방법도 바로 이 격리방법에 의한 것이다.

셈, 함, 아벳이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이란 해석은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과학적인 증거나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사악한 인간들이 성경과 과학을 오용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만들어낸 논리일 뿐이다. 더구나 거짓된 진화론은 이 인종과 인종차별주의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은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이었으며, 후에 이스라엘에 정복당한 가나안 족속들은 흑인들이 아니었다. 흑인들은 셈, 함, 아벳 모두의 후손들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셈, 함, 아벳은 모두 다 황인과 백인의 조상이다. 우리 인류는 모두 다 아담에게서 그리고 노아에게서 나왔으므로 한 형제들이며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할 존귀한 사람들이다. (계속)

성품칼럼 (29)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엄마의 말 한마디-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19명의 자녀를 모두 훌륭하게 키워낸 수잔나 웨슬리는 자녀를 키우는 모든 어머니들이 바라는 선망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난 아이 하나도 제대로 키우기 어려운데 어떻게 19명이 되는 자녀를 그렇게 성공적으로 양육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면 부러움과 함께 절망감(?)을 주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녀도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고통의 때가 있었답니다. 행실이 바르지 못한 딸 때문이었지요. 부모의 훈계를 무시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고집불통 딸이었습니 다. 아이를 어떻게 다룰까, 정말이지 수잔나도 막막했습니 다.

어느 날 수잔나는 검정 숲을 한 다발 가져와서 딸 앞에 내려 놓으며 말했다. "딸아, 이 숲을 한번 안아보렴. 뜨겁지 않 단다." 그러자 딸이 기겁을 하며 말했습니다. "뜨겁지는 않 지만 손과 목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때 수잔나가 딸을 꼭 껴안 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바르지 못 한 행실은 화상을 입지 않더라고 몸과 마음은 더러워지는 법 이란다." 딸은 그제야 크게 뉘우치고 어머니 뜻에 순종하였 다고 합니다.

큰소리도 안 내고 강요도 않고 협박도 하지 않으면서 아이 를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모 된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그러나 부모의 강요와 지시 또한 별 효력이 없다는 것도 잘 압 니다. 오래 참고 지혜로운 성품을 가진 어머니의 한 마디 말이 방황하는 딸의 인생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수잔나의 이야기는 같은 문제로 방황하는 우리들 부모에게 많은 가르침을 전해줍 니다. 어쩌면 자녀의 방황이란 것이 알고 보면 부모의 정체성 이 흔들리는 데서 출발하는 지도 모릅니다. 좋은 성품을 가르 치는 부모가 되려면 부모가 먼저 좋은 성품을 소유해야 한다 는 사실을 저는 매순간 깨닫습니다.

오늘을 사는 부모들이 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 된 내가 먼저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간구일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무엇보다 경우에 맞는 말 한마디,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자녀를 변화시키는 지혜를 간구하 여 낮은 톤으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현명한 부모님들이 되 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수잔나 웨슬리가 19명의 자녀를 모두 하나님의 큰 일 꾀으로 양육한 자녀양육의 비결입니다. 한번 보시면서 지침으 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1. 울고 보겠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 만약 아이들이 울고 싶으면 조용히 울어야 한다.
2. 아플 때를 제외하고는 간식을 먹이지 않는다.
3. 잠은 규칙적으로 재운다.
4. 정시에 아이들을 요람에 눕히고 흔들어 재운다. 아이가 잠 들 때까지 계속 침대에 있지 않고 1시간 이후에 나온다.
5. 어린 자녀는 보조 의자에서 식사하게 하며 자라서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할 수 있게 돼야 비로소 가족 식탁에서 식사 하게 한다.
6.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앉아서 먹고 마셔야 한다.
7. 아이들은 반드시 서로 부를 때 이름이 아닌 언니 오빠 형 누나 등 바른 호칭을 불러야 한다.
8. 아이들 앞에서 결코 화내지 않고 큰 소리로 꾸짖지 않는 다. 이해할 때까지 설명한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p>간보라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윤철 주일 10:00, 11:00 수요 7:00, 8:00 목회기도회: 오후 8:00</p> <p>Tel: (703)373-7979, Fax: (703)373-8191 6334 N. Dixey Dr., Mt. Lee, VA 22116</p>	<p>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삼 주일 10:00, 11:00 수요 7:00, 8:00 목회기도회: 오후 8:00</p> <p>Tel: (703)481-6891, Fax: (703)481-6896 28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p>	<p>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유 주일 10:00, 11:00 수요 7:00, 8:00 목회기도회: 오후 8:00</p> <p>Tel: (303)447-6865, Fax: (303)447-6843 7794 Ripston St., Arvode, CO 80009</p>	<p>풍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예근 주일 10:00, 11:00 수요 7:00, 8:00 목회기도회: 오후 8:00</p> <p>Tel: (410)222-6291, Fax: (410)222-6297 3290 Monte Rd., Lanesville, PA 15448</p>	<p>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0:00, 11:00 수요 7:00, 8:00 목회기도회: 오후 8:00</p> <p>Tel: (717)345-1812, Fax: (717)345-2036 1600 Woodhouse Rd., Levittown, PA 19017</p>	<p>맨얼교회 담임목사: 김용택 주일 10:00, 11:00 수요 7:00, 8:00 목회기도회: 오후 8:00</p> <p>Tel: (410)410-1236, Fax: (410)410-6973 3196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권택영 주일 10:00, 11:00 수요 7:00, 8:00 목회기도회: 오후 8:00</p> <p>Tel: (617)543-4578, Fax: (617)543-4578 7 Main St., Hopedale, MA 01748</p>	
<p>볼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철 주일 10:00, 11:00 수요 7:00, 8:00 목회기도회: 오후 8:00</p> <p>Tel: (410)327-8445, Fax: (410)327-8445 1800 Bessie Ave., Mt. Airy, MD 20852</p>	<p>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0:00, 11:00 수요 7:00, 8:00 목회기도회: 오후 8:00</p> <p>Tel: (202)458-0191 5007 Pacific Ave., St. P. O. Box 5358 Lynch, VA 22904</p>	<p>시애틀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0:00, 11:00 수요 7:00, 8:00 목회기도회: 오후 8:00</p> <p>Tel: (206)227-0281, Fax: (206)227-1748 4040 N.E. 109th St., Seattle, WA 98125 www.kyosoncenter.org</p>	<p>압간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권남수 주일 10:00, 11:00 수요 7:00, 8:00 목회기도회: 오후 8:00</p> <p>Tel: (301) 820-8648 / Fax: (301)820-8776 850 Barry Rd., Little Rock, AR 72711 www.kjcc.com</p>	<p>앵커리지델린문교회 담임목사: 유계업 주일 10:00, 11:00 수요 7:00, 8:00 목회기도회: 오후 8:00</p> <p>Tel: (207)344-6444, Fax: (207)344-3127 3270 Woodrow St., Anch., AK 99518</p>	<p>엘파소델린문교회 담임목사: 하대수 주일 10:00, 11:00 수요 7:00, 8:00 목회기도회: 오후 8:00</p> <p>Tel: (817)915-7938-5486, Fax: (817)915-7938-5486 3418 Atlas Ave., Ft. Worth, TX 76104</p>	<p>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송권 주일 10:00, 11:00 수요 7:00, 8:00 목회기도회: 오후 8:00</p> <p>Tel: (215)443-0298, Fax: (215)443-0377 728 Wilbur Rd., Homestead, PA 15044</p>	
<p>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경환 주일 10:00, 11:00 수요 7:00, 8:00 목회기도회: 오후 8:00</p> <p>Tel: (281)424-6765, (281)421-4837 409 N. 8th St., Killeen, TX 76541</p>	<p>워싱턴아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황세영 주일 10:00, 11:00 수요 7:00, 8:00 목회기도회: 오후 8:00</p> <p>www.wscpa.org Tel: (703)341-4427, Fax: (703)341-4449 4213 Metcalf St., Alexandria, VA 22303</p>	<p>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0:00, 11:00 수요 7:00, 8:00 목회기도회: 오후 8:00</p> <p>www.jsc.org Tel: (904)590-7500, Fax: (904)590-7514 10207 Robison Rd., Richmond, VA 23234</p>	<p>큰루리교회 담임목사: 나용삼 주일 10:00, 11:00 수요 7:00, 8:00 목회기도회: 오후 8:00</p> <p>Tel: (410)213-0318, Fax: (410)213-0312 209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p>	<p>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황계근 주일 10:00, 11:00 수요 7:00, 8:00 목회기도회: 오후 8:00</p> <p>Tel: (253)385-1949 7481 E. Verde St., Tacoma, WA 98409</p>	<p>타코마 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0:00, 11:00 수요 7:00, 8:00 목회기도회: 오후 8:00</p> <p>Tel: (253)833-6207, Fax: (253)833-6284 8702 E. 2nd St., Tacoma, WA 9844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영 주일 10:00, 11:00 수요 7:00, 8:00 목회기도회: 오후 8:00</p> <p>Tel: (253)238-8875, Fax: (253)238-8875 8424 E. Yukon Ave., Tacoma, WA 98444</p>	
<p>템파장로교회 담임목사: 윤경삼 주일 10:00, 11:00 수요 7:00, 8:00 목회기도회: 오후 8:00</p> <p>www.tpcac.org Tel: (480)726-0191, Fax: (480)567-3997 1160 S. Dobson Rd., Chandler, AZ 85226</p>	<p>아트포드제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0:00, 11:00 수요 7:00, 8:00 목회기도회: 오후 8:00</p> <p>Tel: (603) 842-4738, Fax: (603) 847-5656 306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h2 style="margin: 0;">하와이지역</h2>		<p>아가페선교침례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0:00, 11:00 수요 7:00, 8:00 목회기도회: 오후 8:00</p> <p>Tel: (808)739-5011 1835-A Peleia Ave., Honolulu, HI 96818</p>	<p>아덴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상현 주일 10:00, 11:00 수요 7:00, 8:00 목회기도회: 오후 8:00</p> <p>Tel: (808)739-1004, Cell: (808)218-4682 1563 8th Ave., Honolulu, HI 96818</p>	<p>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김순관 주일 10:00, 11:00 수요 7:00, 8:00 목회기도회: 오후 8:00</p> <p>Tel: (808)277-2386/167-1776/542-2522 1361 E. Kawili Rd., Honolulu, HI 96814</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원규 주일 10:00, 11:00 수요 7:00, 8:00 목회기도회: 오후 8:00</p> <p>Tel: (808)947-4252, Fax: (808)947-4161 www.hkcc-hawaii.org 25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지상대명령 성취위한 전략 네트워크 형성

Call2all LA국제전략회의의 100여국 1400여

Call2all LA 국제전략회의가 지난 달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롱비치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Call2all 운동은 교회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위대한 지상대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서 지난 2008년 1월 올랜도에서 열렸으며 이번 LA대회는 17번째로 열리게 된 행사이다.

이번 국제 전략회의는 전 세계 100여개 나라의 리더들 및 약 1400여개의 교단, 단체, 교회 등의 리더들이 모두 함께 모여 지상 대명령을 성취하기 위한 전략을 짜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무엇보다 헌신하는 시



2011 Call2all LA국제전략회의에서 사리암 사모가 강의하고 있다

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한국을 비롯 중국,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남

아프리카, 독일, 캐나다 등 약 100여국에서 참가했다.

전체회의로는 '7777프로젝트', '#0을 향하여', '성경과 교회', '복음전파' 등의 주제로 열렸으며 한국어워크숍으로는 SB48 저지운동에 앞장섰던 △김태오 목사와 김세라 사모의 '정책, 기독교, 종교' △김정환 선교사의 '단기선교전략' △이용희 교수의 '복한을 위한 기도' △강종원 선교사의 '비즈니스가 선교다' △박신욱 목사의 '복음의 도구 미디어' 등이 열렸다.

또한 △벤지 놀로의 '현대판노예제-인신매매'는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됐다. 화요일 밤에는 'Nefarious'가 상연됐으며 수요일과 목요일 밤에는 Call2all Encounter 찬양과 경배 집회,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7시간동안 7대륙을 위한 기도와 예배' 집회를 열었다.

(박준호 기자)



하나인커뮤니티교회에서 열린 씨앗 집회에서 가스이미지 뮤지컬팀이 공연하고 있다

“하나님 선하신 뜻 이루는데 힘쓰겠다”

하나인커뮤니티교회 설립1주년기념 ‘씨앗’ 집회

하나인커뮤니티교회(담임 김창군 목사)는 교회 설립1주년을 기념하며 지난 3일 저녁 7시30분 '씨앗' 집회를 개최했다. 교회에서 같들이나 상처를 또는 개인사정상 교회를 떠나있던 자들을 위해 마련한 이날 집회는 1부 만남의 기쁨, 2부 복음동네 이야기로 열렸다.

1부에서는 본 교회 HIS Praise Team의 찬양인도, 심상균 성도의 색서폰 연주, 이관우 집사의 환영인사에 이어 찬양사역자 조셉김의 피아노 연주 및 노래, 가스이미지 뮤지컬의 뮤지컬 공연으로 이어졌다.

2부 순서에서는 10학년 박예슬, 12학년 주효섭의 바이올린과 기타 연주, 하나인교회 영상소개로 이어졌다.

이날 다니엘 뉴먼 목사(아주사과 시립대학교 교수)는 '올바른 교회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뉴먼 목사는 "교회는 가족이며 하나님 이 심으신 씨앗이다.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녀들의 사소한 행동까지도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교회는 무능하고 연약하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으시다. 우리가 교회에서 지치고 상처받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대로 하려고 해서이다. 신앙생활을 각자의 입맛대로 하는 자들에게는 사탄마귀는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인으로 바로 서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항상 마귀의 공격이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바로 서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주안에서 늘 승리하는 자들이 되자"고 당부했다.

이날 김창군 목사는 "하나님께서 하나인커뮤니티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마 28:18-20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겠다. 하나인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나가는데 힘쓰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되는데 힘쓰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장로성가단원들이 찬양을 그리고 있다



효과적인 젊은이 전도 전략에 대한 방향을 발표하고 있는 박현모 목사

“찬양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사역”

남가주장로성가단 18회 정기공연, 지휘 이정욱

남가주장로성가단(단장 최세용/지휘 이정욱, 반주 한미경) 제 18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4일 오후 6시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중기 목사)에서 개최됐다.

남성합창으로 '주님을 사랑해', '하늘은 주의 영광', '여호와가 다스리시네' 등을 선사하며 막을 올린 연주회는 남성 중창단의 '거룩 거룩 거룩', '현한 십자가 능력' 노래로 이어졌다.

특별이 이날 소프라노 최정원씨가 찬조 출연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의 은혜' 등을 감미로운 음색으로 들려주며 참석자들

을 감동의 도가니로 인도했다. 또한 캘리포니아어린이합창단원들은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어린이들의 기도', '이날은 주의 날' 등을 노래했다.

본 성가단은 1992년에 창단돼 매년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정욱 지휘자는 연세대학교에서 작곡으로 BM을, 서던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합창지휘 전공으로 MM과 DMA과정을 공부하고 현재 아주사 대학에서 성악을, 웨스턴 대학에서 합창지휘를 가르치고 있다.

(이성자 기자)

“2040세대 전도 길은 무엇인가?”

제 25회 성결포럼, 발제 박현모 목사

미주성결대는(총장 류종길 목사)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 임마누엘교회(담임 류종길 목사)에서 제 25회 성결포럼을 열었다. 이날 발제에 박현모 목사(대신교회 담임), 논찬에는 황의정 목사가 나섰다.

박현모 목사는 '효과적인 젊은이 전도 전략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다. 박 목사는 "젊은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필요충분적인 전도를 실행하고 문화적인 코드를 이용하며 소그립전도를 활용하라. 또한 교회에서 젊은이를 위한 동아리 모임을 갖고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예

배를 통해 비전과 도전정신을 심어 줘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육신적인 전도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목회자의 의식과 삶이 중요하다. 현대는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이 크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목회자들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피력하며 '농심목회', '농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농심목회의 원리는 "초심을 잃지 말고 겸손하고, 열심을 품고 구령사역을 감당하자, 양심을 지키며 정직한 영을 소유하자"는 것이라고 소개하며 "목회자의 의식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현모 목사의 발제에 대해 논찬자로 단에 선 황의정 박사(미주성결대 교수)는 박현모 목사의 발제에 대해 찬사를 보내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젊은이가 몇 살부터인지? 특성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했으면 좋았겠다"고 지적하며 "포스트모던의 종교관과 영성이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성령의 건강 전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적 영혼을 한다면 교계와 목회에 호기가 올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성결포럼은 류종길 목사(미주성결대 총장) 환영 인사, 김광렬 목사(미주성결교회 부총회장) 기도로 시작됐으며 발제와 논찬에 이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성자 기자)

사랑의 점퍼나누기 이미지용 대축제

소중환사람들 주최 나성순복음교회 점퍼 500벌 지원

소중환사람들(대표 김수철 목사)이 주최하고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가 주관한 사랑의 점퍼 나누기 및 이미지용 대축제가 지난 3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LADa운타운 내 소중환사람들 사역지(351 Croker St, LA)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LADa운타운에서 생활하는 홈리스들에게 점퍼 500벌을 나눠주고 코리안 바비큐를 제공했으며 나성순복음교회에서 30여명의 이, 미용사들이 참가하여 이미지용 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수철 목사는 "10년 동안 나성순복음교회와 함께 했다. 올해 특히 홈리스들에게 점퍼를 제공하고 이미지용 봉사와 음식을 대접할 수

있게 됐다. 한인커뮤니티와 나성순복음교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진유철 목사는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의 표현이다. 추수 감사 헌금으로 정성들여 준비했다. 홈리스를 돕고 어려운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고자 새벽부터 아침식사

소중한 사람들이 주최하고 나성순복음교회가 주관한 사랑의점퍼 나누기, 이미지용대축제가 LADa운타운 소중환사람들 사역지에서 열리고 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

낙원장로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 10:00: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1부 예: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45 Tel: (718) 482-7783, Fax: (718) 482-6337 47-20 Queens Blvd., Bayside, NY 11104 www.nayonchurch.org	뉴욕갯새마녀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목회 기도회: 오전 8:30 목회 기도회: 오전 9:00 Tel: (718) 484-2386, Fax: (718) 482-4333 40-76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semae.org	뉴욕독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 3: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전 8:30 목회 기도회: 오전 9:15 Tel: (718) 261-9126, Fax: (718) 261-9423 40-05 Skillman Ave., Bayside, NY 11104 www.mokyang.org	뉴욕릴렐마리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택원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 3: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목회 기도회: 오전 8:30(토-일) 목회 기도회: 오전 11:00 Tel: (914) 383-1977, Fax: (914) 383-1987 2 Beecher Hill Road, Fort Washington, NY 11005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어중현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목회 기도회: 오전 8:00 영 1부 예: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Tel: (718) 481-2810(어중현), (718) 273-3411 40-4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순복음인도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30 목회 기도회: 오후 9:00 Tel: (718) 481-7338 / CP, (718) 482-7777 40-44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rock.org	뉴욕 중부교회 담임목사: 김계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30(토-일) 목회 기도회: 오후 9:00(토-일) Tel: (718) 279-2707, Fax: (718) 279-1822 82-07 Messex Road, Cypress, Little Neck, NY 11362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진승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목회 기도회: 오전 8:00(토-일) 목회 기도회: 오전 8:00(토-일) Tel: (718) 482-3491, Fax: (718) 482-6278 77-17 Rockaway Ave., Jackson Heights, NY 11372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락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오전 8:00(토-일) 목회 기도회: 오전 8:00(토-일) Tel: (718) 763-2736, Fax: (718) 763-2711 42-18 168th St., Flushing, NY 1135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전 8:00(토-일) 목회 기도회: 오전 8:30(토-일) Tel: (201) 321-9134(Call), Fax: (201) 321-5244 300 State St., Montclair, NJ 0704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철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목회 기도회: 오전 8:00(토-일) 목회 기도회: 오전 8:30(토-일) Tel: (718) 481-2171, Fax: (718) 481-2621 27-27 104 St., Flushing, NY 11358	영어일렌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계형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영 1부 예: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Tel: (914) 383-2810(어중현), (718) 273-3411 150 Edison Ave., Westbury, NY 11590	매다니교회 담임목사: 송승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30(토-일) Tel: (914) 264-2880, Fax: (914) 264-2880 481 Ave. Rd., Westbury, NY 11591 450 Main St., Westbury, NY 11591	어린이양 교회 담임목사: 김수택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2: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목회 기도회: 오후 8:30 목회 기도회: 오후 9:00 Tel: (718) 482-6328, Fax: (718) 482-6422 89-38 47th Ave., Woodside, NY 11377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Tel: (718) 763-6888, Fax: (718) 763-6888 70 Plandome Rd., Montclair, NY 11320	주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동욱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목회 기도회: 오후 8:30 목회 기도회: 오후 9:00 Tel: (718) 210-7991, Fax: (718) 210-7991 169-12 72nd Ave., Fresh Meadows, NY 11365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목회 기도회: 오후 8:15 목회 기도회: 오후 8:00 Tel: (201) 321-5022(Call), Fax: (201) 321-5242 445 Old Post Road, Montclair, NJ 07041	핀즈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영준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Tel: (718) 481-4540, Fax: (718) 481-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fins.org	핀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철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토-일)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토-일) 목회 기도회: 오후 11:30(토-일) 목회 기도회: 오후 11:30(토-일) Tel: 718-672-1120 89-06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finsch.org	한미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아름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8:30 목회 기도회: 오후 8:30 목회 기도회: 오후 8:30(토-일) Tel: (516) 277-1103, Fax: (516) 272-0200 70 School St., Great Neck, NY 11542 Email: hmc@hmcny.org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하는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 665-0009 Fax: (323) 665-0048 N.Y.: Tel. (718) 698-4430 Fax: (718) 698-0074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남미지역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2: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목회 기도회: 오전 8:40 Tel: (517) 748-6888, Fax: (517) 748-6888 Box 444444, P.O. Box 444444, Fort Worth, TX 76164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2: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목회 기도회: 오전 8:40 Tel: (517) 748-6888, Fax: (517) 748-6888 Box 444444, P.O. Box 444444, Fort Worth, TX 76164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목회 기도회: 오전 7:30 목회 기도회: 오전 8:30 목회 기도회: 오전 8:45 Tel: (011) 55-11-3270-8232, 3277-1161 R. Lúcio Alves N. Libertade CP 01029-010	브라질 새사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목회 기도회: 오후 8:30 목회 기도회: 오후 7:30 Tel: (011) 55-11-3270-8232, 3277-1161 R. Lúcio Alves N. Libertade CP 01029-010	아르헨티나 재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0:30 목회 기도회: 오후 8:30 목회 기도회: 오후 12:30 Tel: (54) 114-631-0782 Av. Caballero 1263 Cap.Fed., B.B.A.,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양이상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예배: 오전 12:30 목회 기도회: 오후 8:30 목회 기도회: 오후 8:30 Tel: (56) 2133-7828, (56) 2133-6388 Santiago Centro - 3 Calle 325 Chile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전교사: 임학준 목사 전교사: 신학호 교장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1,2,3부 예배는 별도) Tel: (598) 211-574-885 E-mail: hmc@hmcny.org Corrientes RD, 1001, Asuncion-PARAGUAY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교협 2012년 신년하례회

뉴욕교협(회장 양승호 목사) 2012년 신년하례회가 2012년 1월 9일(월) 오후 7시, 대동연회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초대 인원은 뉴욕교계 원로를 비롯 한인사회 인사들 600여명.
▲문의: (718)358-0074

뉴욕기독교 TV 후원 자선음악회

뉴욕기독교(KC)TV 후원 자선음악회가 12월 18일(주) 오후 6시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린다. 효신장로교회가 주최하고 KC TV가 주관하며 한국일보가 후원한다. 하이든의 '천지창조'와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이 연주된다. 각 파트별 참여희망자는 매주 일요일 1시부터 4시까지 효신장로교회에서 진행되는 연습에 참여할 수 있다.
▲문의: (718)762-5756

뉴욕병원선교회 성탄위회

뉴욕병원선교회(회장 김영환 목사)가 2011년 성탄절을 맞아 양로원과 병원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위회회를 계획하고 모금을 진행 중이다. 메일주소는 20-44 130St.#2F, College Point NY 11356, 수표에 WKBCB 나 YOUNG HWAN KIM으로 하면 된다.
▲문의: (914)393-1450

김종찬 목사 '북한 어린이 돕기' 콘서트

인기가수였던 김종찬 목사의 북한 어린이 돕기 라이브 콘서트가 뉴욕에서 열린다. 공연일시는 9일(금) 오후 8시30분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 10일(토) 필라델피아장로교회(담임 이용걸 목사) 11일(주) 오전 10시30분 뉴욕갈릴리교회(담임 정도영 목사) 오후 7시30분 팰리세이드교회(담임 임정섭 목사).
▲문의: 샘의료선교회 (215)635-1100, (718)662-6055

KCBN 후원감사예배

KCBN 미주기독교방송(사장대행 문석진 목사)이 주최하는 후원감사예배가 12월 19일(월) 저녁 7시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린다.
▲문의: (718)463-1700



'삶과 문학' 출간 축하연

시인 곽상희 권사(프라미스교회)가 지난 11월 28일 종합서 '삶과 문학'의 창간호 출간 축하연을 마치고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 했다. 한편 곽 시인은 한국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비평가협회 주최 공모전에서 소설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소설 제

목은 "시지푸스의 도전"으로, 70년대 초기 뉴욕 이민사회의 고난과 약조건의 역사를 묘사한 작품이다. "시지푸스의 도전"은 곽 시인이 80년 집필한 작품으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표됐다. 시상식은 지난 29일 시카고에서 열렸다.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신유축복대성회 말씀에 앞서 이만호 목사가 기도 인도하고 있다.

협동총무단 강화·2개 분과위 추가

뉴욕교협 첫 임실행위, 예배설교 목사회장 김승희목사

뉴욕교협(회장 양승호 목사) 제 1차 임실행위위원회가 지난 5일 뉴욕예일장로교회(담임 김중훈 목사)에서 열린 신년계획을 발표하고 안건들을 처리했다. 교협은 38회기 주제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땅끝까지"로 정했다.

1부 예배는 김중훈 목사 인도로 기도 박맹준 목사, 말씀 김승희 목사(뉴욕목사회 회장), 광고 이희선 목사, 축도 김원기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승희 목사는 "복 받은 자"(시34:1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30년 한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니 '말'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복받기를 원하면 말소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국 사람들은 말이 많고 부정적인



뉴욕교협 첫 임실행위위원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말을 많이 하는데 험담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번 회기 교협과 목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건은 다음과 같다.
▲신년하례 준비 △법규위원회(이병홍 목사, 이희선 목사, 현영갑

목사, 김연규 목사, 김요셉 목사), 5인조사위원회(김원기 목사, 이병홍 목사, 박태규 목사, 현영갑 목사, 김홍석 목사), 신학윤리위원회(박태규 목사, 한문수 목사, 송병기 목사, 김상태 목사, 양민석 목사) △이웃사랑 실천모금운동 △미자립교회 후원은 위원장 김수태 목사에게 일임. 교협은 후원금만 지급 △교협 2층 사무실을 목사회에게 렌트 △인터넷 매체, 유튜브 동영상 촬영 등 자체 요청.

38회기년 계획 초안은 다음과 같다.
△교회 언론사 유관단체 방문 △임실행위 일정: 1차-12월 5일 예일장로교회, 2차 3월 12일 뉴욕어린이양교회, 3차 6월 11일 뉴욕한국인그레

닛네교회, 4차 9월 10일 한인동산장로교회 △신년하례(준비위원장 최예식 목사): 2012년 1월 9일(월) 대동연회장 △부활절 새벽연합예배(준비위원장 이봉삼 목사): 4월 8일 △능구대회(정소년분과): 4월 21일(토) △지도자 컨퍼런스: 5월 14-16일(미확정) △체육대회(준비위원장 이정남 목사): 메모리얼데이 △정소년 할렐루야대회(정소년분과): 7월말 △할렐루야대회: 7월 13-15일 혹은 20-22일 △총회: 10월 15일(예정). 2012년도 예산은 41만 달러로 보고했다.

첫 조직과 비교해 변동된 점은 청소년분과 노성보 목사가 협동총무로, 청소년분과는 이재홍 목사(예배예셀선교회 공동담임)가 임명됐으며, 실행위에서 경주분과(김영철 목사), 재해분과(한석진 목사)가 추가됐다. 38회기 교협은 협동총무단(12명)을 강화하고 각 사업 진행 시 협동총무들이 분과위원장들과 연계해 사전점검 및 발로 뛰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양승호 회장이 밝혔다.

이날 5인조사위원회에 대해 안창의 목사(종재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으나 지난 총회 때 결의된 것이라며 그대로 진행됐다.

한편 교협은 첫 행사로 지난달 21일 추수감사 과일나눔을 코코, 무지개의 집 등 뉴욕의 8개 기관에 전달했다.

<유원정 기자>



KAPC 뉴욕노회 임시노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KAPC 뉴욕노회 제 69회 1차 임시노회

퀸즈장로교회 장영춘 목사 당회장직 시무사면 허락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강기봉 목사) 뉴욕노회(노회장 이원호 목사) 제 69회 1차 임시노회가 지난 5일 퀸즈장로교회(담임 장영춘 목사)에서 열려 퀸즈장로교회 당회장 장영춘 목사의 당회장직 시무사면 허락청원을 통과했다.

퀸즈장로교회는 하루 전인 4일 공동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장영춘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했다. 장 목사는 원로로 추대되면서 40년의 목회사역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장 목

사의 원로목사 추대식은 내년 퀸즈장로교회 설립 38주년 기념일에 함께 열릴 예정이다.

노회는 이날 계명장로교회(담임 황경일 목사)의 교회이전 허락청원도 받았다.

회의에 앞서 열린 예배는 노회장 이원호 목사 인도로 기도 김수용 목사, 성경봉독 김재호 목사, 설교 이원호 목사("날의 기적적인 연장", 수 10:12-15), 축도 장영춘 목사, 광고 황경일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우리서로잡은손' 행사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세계장애인의 날 기념 "우리서로잡은손" 행사

국제장애인선교회 주관, 골드워터 병원서 뮤직 페스티벌 개최

우리서로잡은손(대표이사 임선숙) 산하 국제장애인선교회(회장 박기승 목사)가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3일 저녁 루즈벨트 아일랜드에 있는 골드워터 병원 강당에서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병원에 있는 300여 명의 장애우들과 환자들이 참석해 위로 받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회장 박기승 목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며 "우리는 모두 평등하고 귀한 존재들로, 이 자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를 감추며 위로받는 격려의 자리라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날 행사에 대해 임선숙 대표이사는 "다양한 국적의 장애우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한국교회의 문화공원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갖게 된 것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외된 이들

과 장애우들을 위해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서로잡은손은 장애인사역, 해외선교, 방송, 한국지부 등 4개부분의 사역을 하고 있다. 장애인사역으로는 양로원이나 병원을 찾아 예배를 드리는데 행사가 열린 골드워터 병원은 매 주일 오후 4시 김용철 목사의 인도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동 단체는 한국 장애인의 달인 4월에 한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해왔으나 "우리서로잡은손"이 2009년 UN NGO 단체로 등록됨에 따라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 날인 12월 3일 다민족을 위한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베해본 국악팀, 우드윈연주단(단장 유진웅), 뉴욕정성결교회, 예배예셀선교회 위시팀, 뉴하트교회 위시팀 등이 출연해 다양한 공연을 했으며 국악팀 공연은 참석자들로부터 깊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유원정 기자>

"하나님 능력은 영원불변, 관계회복이 중요"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장항희 목사 11번째 대성회 초청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이만호 목사)는 지난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장항희 목사(일산 든든교회 담임)를 초청, 신유축복대성회를 열었다. 순복음안디옥교회에서 11번째 집회를 가진 장항희 목사는 저녁 8시와 오전 5시30분 하루 2번씩 집회를 인도했다.

매 집회는 이만호 목사의 인도로 시작돼 첫날 예루살렘찬양대, 둘째날 여성중창단, 셋째날 남성중창단, 넷째날 청년부중창단 등이 찬양했다. 또 매번 말씀 후에는 장 목사가 인도하는 특별기도 시간을 가졌다.

첫날 집회에서 장항희 목사는 "하나님의 능력"(출4:17)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장 목사는 "저주보다 축복의 용어를 사용하라"고 강조하며 "하나님 능력의 정비례 공식 3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으며 영원하며 관계회복이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물질관계 등 3가지 관계가 중요하다. 3가지 관계만 잘되면 행복하다. 행복에서 오는 것은 안식의 축복이다. 안식은 평안이며 심의 축복"이라고 전했다.

또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라"며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한다. 순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원정 기자>

Advertisement for New York Kom Tang, featuring a cow logo and text about 24-hour service and various products.

Advertisement for Dynamics World, featuring the Adidas logo and text about church printing services and dynamic world website.

Advertisement for SBM (Son In Shadow Movement), featuring a photo of a man and text about faith, scripture, and cultural impact.

Advertisement for the iPhone app of The Korean Christian Press, featuring a photo of a hand holding a smartphone.

Advertisement for Yoo Travel, featuring the text '유 여행사' and '항공권 전문 도매 대리점'.

Advertisement for Light & Love, featuring the text '빛과 사랑' and '발행인 권태진'.

Advertisement for a church event, featuring the text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and a list of contact information.

사랑의쌀 성금 총2만3080달러 모금

미주성시화본부, 11/11/11로즈볼 연합기도회 보고회도 가져

미주성시화운동본부(이하 미주성시화본부)를 비롯 한 인 기독교계가 공동으로 벌이고 있는 '사랑의 쌀 나눔 운동 성금전달식'이 지난 29일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려 교회 및 단체, 개인이 1만6,080달러를 전달했다. 주최 측은 지난 11월 29일까지 임금 및 약정된 사랑의 쌀 성금은 총 2만3,080달러라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사랑의 쌀 캠페인의 목표액은 1만포 분량의 10만 달러로 이를 위해 메시아 합창 공연을 3차례 갖게 된다. 이번 공연의 수익금 전액은 사랑의 쌀 구입에 사용되며 티켓 가격은 10달러로 티켓 1장을 사면 쌀 한포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측은 "메시아 합창공연 티켓을 구입하는 이



사랑의 쌀 성금전달식에서 도네이션된 봉투를 들고 사진을 찍고있다

들에게는 공연이 끝난 후 티켓을 한 장씩 나눠줘 사랑 나눔에 동참한 한인들이 직접 상품권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시아 공연은 12월 16일 웨스트힐장로교회(담임 김민식 목사), 17

일 옐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엄영민 목사), 18일 동양선교교회(담임 박형은 목사)에서 오후 7시에 각각 열린다.

쌀 배포는 12월 17일과 24일 2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LA총영사관과 지정 배부처 교회 등 20여 곳에서 나눠줄 예정이다. 수혜 대상은 생활보호대상 가정을 비롯해 독거노인, 학업급식 결식아동, 공황지역, 사회봉사단체 등이다.

한편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는 지난 11월 11일에 열렸던 로즈볼 다민족연합기도회 감사와 임원보고회를 같은 장소에서 가졌다. 이날 이성우 목사(실행위원장)의 진행으로 열

린 보고회에서 송정명 목사(대표대회장은)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열린 로즈볼 기도회 열기는 무척 뜨거웠다"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가능한 것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보고회는 감사기도에 변영익 목사, 주최 측과 중보기도 나눔에 전두승 목사(대의위원장), 동원 나눔에 강순영 목사(동원위원장), 재정보고에 최문환 장로(재정위원장), 그리고 감사들에게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진 액자선물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날 박성규 목사는 "지난 SB48저지 서명운동이 7천여표가 부족해서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나 11/11/11 로즈볼 기도대회 이후 교과서에서 동성애 관련 내용을 삭제하자는 내용이 상정 되어 SB48법안을 다시 한 번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라 말했다.

이날 모인 목회자들은 "앞으로 다양한 민족 그룹들이 지속적으로 세계적 부흥과 추수를 위해 교회의 연합이 필요하다. 세계적 각성과 마지막 때의 성령의 부어짐을 위해 캘리포니아와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작은 모임들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위해 내년에도 로즈볼에서 모이는 의견과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들에서도 대규모 스타디움 기도집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박준호 기자)

샌버나디노카운티교협 김성일 목사 회장연임

제3회 정기총회, 부회장에 정중재 목사 선출

샌버나디노카운티 한인교회협의회 제3회 정기총회에서 김성일 목사가 회장으로 연임됐다.



샌버나디노카운티교협 총회에서 김성일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지난 5일 오전 10시 빅토빌에 수마음교회(담임 김성일 목사)에서 열린 샌버나디노카운티 한인교회협의회 제3차 정기총회에서 타 지역으로 옮겨가 공석인 부회장의 임기를 고려해 제2대 김성일 목사(빅토빌 예수마음교회)를 연임하도록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그리고 지난회기 총무로 수고했던 정중재 목사(레드랜드한인교회 담임)를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김성일 목사는 "지난 회기동안 샌버나디노 카운티산하의 여러 교회들이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려운 위기의 순간들을 지키신 것들에 대해 감사한다. 새로운 회기에는 카운티산하의 교회들이 말씀을 많이 통독하는 캠페인과 지역 교회 안

에 대각성 기도회가 확산되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는 행정상 합리적인 절차를 위해 12월초에 정기총회를 열도록 회칙을 수정을 하고 회원교회들의 회비납부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교제의 필요성과 총회공고를 이메일로 통보했던 것을 우편물과 언론광고도 하기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LA성시화운동본부에서 성탄절을 맞아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과 미주기독교총연합회가 주도하는 대각성기도회,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폐기물 수거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의하고 폐회했다.

(기사제공: 샌버나디노카운티교협)

12월 10일 미주족구 최강전

미주족구협회가 주최, 옐렌지카운티족구협회 주관으로 미주족구 최강전이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애나하임소재 아메리칸 스포츠센터(1500 S Anaheim Bl Anaheim CA, 92805)에서 개최된다.

단기선교전문단체인 SON Ministry(대표 김정환 선교사)는 족구가 우간다 청소년 선교의 도구가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2012년 5월 우간다 족구단기선교팀을 파송하기로 결정, 현재 팀원들을 구성하여 연습에 임하고 있다.

한편 우간다 현지에서는 이상철 선교사가 우간다의 수도인 캄팔라 시에서 교회들과 캄팔라 시장과 국회의원과 족구보급을 위해 일을 추진 중에 있다. 금번 대회에 시 열어지는 수익금은 전액 우간다 족구단기선교팀 파송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본 미주족구최강전은 SON Ministry 해외 족구선교단, 대한족구협회, 전국족구연합회, 재미 대한체육회, 옐렌지카운티 체육회, 스타스포츠 등이 후원한다.

▲문의: (714)308-1787

뉴비전교회 차세대신앙지도자위한 장학생 발표

뉴비전교회(담임 이진수 목사)가 지난 5일부터 접수한 뉴비전교회 장학생을 발표했다. 해마다 차세대들을 위한 신앙적한국인 지도자 육성을 목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총 16명 신청자 중 6명이 최종 선정됐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개인별 각 1천 달러씩 총 6천 달러가 지급됐으며 앞으로도 뉴비전교회는 차세대 신앙적 지도자

육성을 위해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은 선발된 이번 2011-2012학년도 장학생 명단이다. Jenard Cahatol(Pathway교회), 정태군(아시아지역 전도사), Eric Kim (연합감리교회, 대학생), 김조섭(KFBC오레곤, 대학생), 김유태(유럽지역, 유학생), 이은주(뉴비전교회, 대학생)



Anaheim 1st Church of Nazarene에서 열린 메시아 연주회

남가주목사회 주최 '메시아' 연주회 성황

메시아 코랄, 홀리보이스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

남가주목사회(회장 김영대 목사)가 주최하고 홀리보이스 미션(단장 한종철 박사)과 새삼교회(담임 광경동 목사, 송규식 목사)가 주관한 '메시아' 공연이 지난 4일 저녁 7시30분 애나하임제일나사렛교회(담임 크레이 웨슬러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크레이 웨슬러 목사(인사말)와 직전회장 박효우 목사의 기도

로 시작된 이날 공연은 메시아 코랄(지휘 송규식 목사)이 홀리보이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 메시아 전곡을 불렀다. 또한 소프라노 김선영, 지경, 메조 소프라노 주광옥, 테너 안창권, 바리톤 권상욱이 솔로이스트로 출연해 이날 공연을 더욱 아름답게 수놓았다.

이날 연주회는 김영대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미주복음방송 목회자 초청 오픈하우스

미주복음방송(사장 박신욱 목사)은 목회자 초청 오픈하우스를 지난 30일 오전 11시에 가졌다. 이날 오픈하우스는 미주복음방송을 후원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초청해 열린 것으로, 복음방송의 역사와 비전 등을 제시하고 복음방송을 위한 합심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아사도(아르헨티나식 비비큐)를 본 방송사 사장인 박신욱 목사가 협동목사로 사역중인 남가주든든교회(담임 김현인 목사)에서 제공했다.

(박준호 기자)

유상수 목사 소천

은혜와 평강교회 담임 유상수 목사(사진)가 지난 3일 새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고 유 목사는 최근까지 아르헨티나 집회를 인도하는 등 구원사역에 앞장서왔기에 소천소식에 놀라



움과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고 유 목사는 3주전 간암선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는 교회장으로 진행돼 6일 입관예배, 7일 발인예배를 드린 후 장지인 Hollywood Forest Lawn Memorial Park에 안치됐다.

고 유상수 목사는 아르헨티나 총현교회를 담임하다 미국 시카고로 이주했으며 지난 2010년 2월 21일 은혜와평강교회 4대 목사로 취임했다. 유족으로는 유미나 사모와 장녀 유소라, 사위 원정필, 차녀 유나라가 있다. (이성자 기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자'

남가주든든교회 연말부흥집회, 강사 김테일러 목사

남가주든든교회(담임 김현인 목사)는 김테일러 목사를 초청,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연말부흥집회를 개최하고 말씀으로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기회로 삼았다.

미 육군군부 대위로 사역하는 김테일러 목사는 자신이 합동고려 어려운 광야의 삶을 지날 때 그 속에 함께하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며 말씀을 이어갔다.

김 목사는 첫날 '광야의 하나님'(신34:1-6), 둘째 날 새벽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딤후2:1-5), 저녁 '하나님의 열심'(창12:1-4), 주일 낮 '너

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마1:1-16) 제목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될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모든 일을 감당하며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고 예수그리스도를 나사게 하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들이 되라"고 당부했다.

남가주든든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신년을 맞이하기 위해 부흥집회를 준비했으며 12월 19일(월)부터 다니엘 20일 특별새벽기도를 시작해 1월 13일까지 이어가게 된다. (이성자 기자)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주)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Toll Free 1-800-281-2123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책화점

2107 W. Olympic Blvd., 4100 Los Angeles CA 90007
TEL: 213.882.4828 Fax: 213.885.1164 www.lifebook.co.kr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차이가 명품 웨딩을 만듭니다
The(원) 결혼식, 돌잔치, 세미나, 각종행사

아로마센타5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l, L.A., CA 90010

GRAND OPENING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다양한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8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세계를 넘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광화**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5-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Alpha Printing & Design

323.663.2211 alpha2211@gmail.com 4422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34

“선교지에 미주크리스천신문을!”

“우리 모두 보내는 선교사가 됩시다”

* 원하는 선교사님을 지정하거나 후원 선교지역을 명시해주시면 본지가 선교사님과 연결해드립니다.

후원회망 지역(나라):	
후원자	한글
	영문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
기타	1년 후원 / 2년 후원 / 3년 후원 ※ 약정 후원 년수에 O동그라미 해주세요.

후원방법: 1년 구독비 190달러를 본지로 우송해주시면 됩니다(미국내는 100달러).

Pay to Order : The Korean Christian Press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서울광장에 '2011 평화의 빛' 밝혔다

CTS·여의도순복음교회·굿피플 '대한민국 성탄축제'

평화의 불빛은 강렬했다. 빨강과 파랑, 녹색 불빛은 순식간에 대형 성탄 트리를 감쌌고 세 불빛은 차가운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트리 꼭대기의 십자가는 붉은 빛을 발하며 그 온기를 뿜어냈다.

3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1 대한민국 성탄축제'에서 22m 높이의 성탄 트리에 밝은 빛이 들어왔다. 참석자들은 성탄 트리에 설치된 수만 개의 전구가 일제히 빛을 발하자 탄성을 질렀다.

내년 1월 3일까지 점등되는 트리는 한 달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다. 이날 축제에 참가한 1000여명의 신자들과 시민들은 삶 속에서 평화의 대사로 살아가기를 다짐했다.

"개신교, 강제적 전도 자제·교과갈등 해소 시급" 미래목회포럼 '한국 종교인구 변동' 주제 세미나

미래목회포럼(대표 정성진 목사)은 지난 2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 연합회관에서 '한국의 종교인구 변동'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사회과학적 분석을 통해 개신교 인자 감소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다.

주 강사로 나선 최현종(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전임연구원) 교수는 통계청이 10년 마다 실시하는 종교인구센서스를 토대로 "1995년부터 2005년 사이 천주교만 신자수 비율이 4.3% 증가했고, 불교(-0.4%)와 개신교(-1.4%)는 감소했다. 그러나 불교는 비율만 감소했을 뿐 실제 신자수는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에 개신교만 순수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불교(37%), 천주교(12%)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다. 설문 참가자들은 개신교에 대해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긍정적 이미지가 있지만 '배타적이고 이기적, 물질중심적, 타락한 성직자의 이미지'를 부정적 요소로 꼽았다. 천주교 성직자가 긍정적 이미지를 갖는 것과 대조적이다. 설문 참여자들은 '강제적·강요적 전도 자제', '교과갈등 해소', '성직자들의 자질향상과 신뢰회복'을 개신교에 바란다고 답했다.

정 목사는 "실문조사와 통계라는 실제적 방법을 통해 얻은 결과인 만큼 겸허히 받아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교회의 회복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목사는 "실문조사와 통계라는 실제적 방법을 통해 얻은 결과인 만큼 겸허히 받아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교회의 회복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선냄비 펄펄 끓도록 도와주세요 한국구세군 대한본영 서울시청서 자선냄비 시종식

[미션라이프] 한국구세군 대한본영은 1일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자선냄비 시종식을 열었다. 이경 성탄절의 아이콘이 된 빨간색의 자선냄비는 이날부터 전국 76개 지역 300여 곳에 설치돼 자원봉사자 4만5000명과 함께 성탄절 전날인 24일까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린다.

구세군은 올해 모금 목표액을 지난해 42억원(원금 33억원, 환물 9억원)보다 많은 45억원으로 잡았다. 지난해 해성금은 노숙자,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등 어려운 이웃 150만명에 전달됐다.

올해는 스마트폰을 QR코드를 스캔하면 2000원을 기부할 수 있는 자선냄비가 처음으로 선보이고 이력 기부자 모인인 베스트 도너 클럽과 ARS 모금, 기업 연계 행사 등도 도입됐다. 인터넷을 통한 모금과 온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텔레비전 9개 모금 캠페인, 내복은행 일일천사운동도 전개된다.

했다. 시민대표로는 아덴만 영웅 석해군 선장을 비롯해 2011 미스코리아 진선미인 이성혜 김혜선 김이슬 씨가 나왔고 13명 다동이 가장 길쭉 태 목사, 다문화가정, 군경 대표 등이 참가했다. 석 선장은 "성탄트리 점등을 통해 어려웠던 2011년을 모두 잊자"며 "내년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화합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올해로 10회째 열린 성탄축제는 CTS와 여의도순복음교회, 굿피플이 주관했다. 축제는 방송인 박승홍씨와 CTS 최슬기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돼 전국에 생방송됐다. 예배와 점등식 이후엔 CCM 가수인 헤리디지와 소향 등이 나와 찬양했다. 굿피플 측은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벤트 부스도 설치해 수익금 전액을 아프리카 빈곤 아동 돕기에 사용하기로 했다.

자선냄비 펄펄 끓도록 도와주세요 한국구세군 대한본영 서울시청서 자선냄비 시종식

[미션라이프] 한국구세군 대한본영은 1일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자선냄비 시종식을 열었다. 이경 성탄절의 아이콘이 된 빨간색의 자선냄비는 이날부터 전국 76개 지역 300여 곳에 설치돼 자원봉사자 4만5000명과 함께 성탄절 전날인 24일까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린다.

구세군은 올해 모금 목표액을 지난해 42억원(원금 33억원, 환물 9억원)보다 많은 45억원으로 잡았다. 지난해 해성금은 노숙자,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등 어려운 이웃 150만명에 전달됐다.

올해는 스마트폰을 QR코드를 스캔하면 2000원을 기부할 수 있는 자선냄비가 처음으로 선보이고 이력 기부자 모인인 베스트 도너 클럽과 ARS 모금, 기업 연계 행사 등도 도입됐다. 인터넷을 통한 모금과 온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텔레비전 9개 모금 캠페인, 내복은행 일일천사운동도 전개된다.

했다. 시민대표로는 아덴만 영웅 석해군 선장을 비롯해 2011 미스코리아 진선미인 이성혜 김혜선 김이슬 씨가 나왔고 13명 다동이 가장 길쭉 태 목사, 다문화가정, 군경 대표 등이 참가했다. 석 선장은 "성탄트리 점등을 통해 어려웠던 2011년을 모두 잊자"며 "내년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화합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올해로 10회째 열린 성탄축제는 CTS와 여의도순복음교회, 굿피플이 주관했다. 축제는 방송인 박승홍씨와 CTS 최슬기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돼 전국에 생방송됐다. 예배와 점등식 이후엔 CCM 가수인 헤리디지와 소향 등이 나와 찬양했다. 굿피플 측은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벤트 부스도 설치해 수익금 전액을 아프리카 빈곤 아동 돕기에 사용하기로 했다.

자선냄비 펄펄 끓도록 도와주세요 한국구세군 대한본영 서울시청서 자선냄비 시종식

[미션라이프] 한국구세군 대한본영은 1일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자선냄비 시종식을 열었다. 이경 성탄절의 아이콘이 된 빨간색의 자선냄비는 이날부터 전국 76개 지역 300여 곳에 설치돼 자원봉사자 4만5000명과 함께 성탄절 전날인 24일까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린다.

구세군은 올해 모금 목표액을 지난해 42억원(원금 33억원, 환물 9억원)보다 많은 45억원으로 잡았다. 지난해 해성금은 노숙자,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등 어려운 이웃 150만명에 전달됐다.

올해는 스마트폰을 QR코드를 스캔하면 2000원을 기부할 수 있는 자선냄비가 처음으로 선보이고 이력 기부자 모인인 베스트 도너 클럽과 ARS 모금, 기업 연계 행사 등도 도입됐다. 인터넷을 통한 모금과 온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텔레비전 9개 모금 캠페인, 내복은행 일일천사운동도 전개된다.

"복음 전파의 장애물 '위기' 관리 통해 다스리자" '위기 디브리핑 세미나'

지금까지 약 7천만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그 중 3분의 2에 달하는 4500만명은 20세기 들어와 순교했다.

이는 최근 서울 본동 노랑진교회에서 열린 한국위기관리재단(KCMS)의 '위기 디브리핑 세미나'에 강사로 초청된 남침례교(SBC) 미국 남침례교신교부(IMB) 위기관리 컨설턴트인 칩 클레리 목사가 밝힌 사실이다.

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면서 마주할 수 있는 위기의 위험이 오늘날 과거보다 더 많아졌다는 점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위기에 도 불구하고 세계 복음화라는 주어진 과업을 다해야 한다. 그렇다면 위기가 이 과업의 수행을 막지 못하도록 다스려야 한다.

위기관리의 중요성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클레리 박사 역시 세미나 기간 '왜 위기관리가 필요한가'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서 이를 강조했다. 그는 위기관리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게 하시나'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주꾼 곳의 삶의 환경이 어려운 곳에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신다. 이러한 곳은 편안함과 안전이 없는 곳일 수 있으며, 복음의 대적들과 맞서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클레리 박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겪어야 하는 위기들도 다스리신다. 바로 위기에 맞서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다양한 위기 속에서 우리의 할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따라가게 하시

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몫은 적절한 위기관리로서 위기를 최대한 피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된다.

오늘날 넘쳐나는 위기들은 질병, 부상 등의 건강 문제부터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 시민불기, 전쟁, 범죄 혹은 불법적 행동, 정부관계 기관 법적 안전, 재판 진행, 미디어의 관심 등 정치적/PR 사건과 범죄 사건까지 다양하다.

클레리 목사는 이같은 위기들에 노출되어 있는 선교사들의 안전이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사안임을 다해야 한다. 그동안 위기기가 이 과업의 수행을 막지 못하도록 다스려야 한다. 위기관리의 중요성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클레리 박사 역시 세미나 기간 '왜 위기관리가 필요한가'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서 이를 강조했다. 그는 위기관리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게 하시나'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주꾼 곳의 삶의 환경이 어려운 곳에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신다. 이러한 곳은 편안함과 안전이 없는 곳일 수 있으며, 복음의 대적들과 맞서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클레리 박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겪어야 하는 위기들도 다스리신다. 바로 위기에 맞서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다양한 위기 속에서 우리의 할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따라가게 하시

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몫은 적절한 위기관리로서 위기를 최대한 피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된다. 오늘날 넘쳐나는 위기들은 질병, 부상 등의 건강 문제부터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 시민불기, 전쟁, 범죄 혹은 불법적 행동, 정부관계 기관 법적 안전, 재판 진행, 미디어의 관심 등 정치적/PR 사건과 범죄 사건까지 다양하다. 클레리 목사는 이같은 위기들에 노출되어 있는 선교사들의 안전이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사안임을 다해야 한다. 그동안 위기기가 이 과업의 수행을 막지 못하도록 다스려야 한다. 위기관리의 중요성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클레리 박사 역시 세미나 기간 '왜 위기관리가 필요한가'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서 이를 강조했다. 그는 위기관리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게 하시나'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시조새' 교과서 내용 틀렸다"

과학자 131명 청원...진화론 개정 필요 절감 대목

[미션라이프] 최초의 새로 알려진 시조새가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종이라고 기술된 국내 교과서가 잘못됐다고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제출된다.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교진추·회장 이광원)는 5일 2011년도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7종) 개정에 대한 1차 청원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에게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시조새는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종이 아니다'는 제목의 이 청원서에는 전·현직 대학교수(대표 윤의수) 74명, 교사(대표 심인구) 57명 등 창조과학자 131명이 뜻을 모아 연구에 참여했다. 현행 교과서에 수록된 진화론에 대한 개정이 절실히 필요함을 절감하는 대목이다.

청원서에 담긴 주요 내용은 △화석에는 시조새를 포함, 어떤 중간종도 발견되지 않는다 △시조새와 현대 조

류의 화석이 같은 지층에서 발굴됐다 △최근 학계에선 시조새를 완전한 비행능력을 가진 '멸종된 조류'였거나 '깃털이 달린 동물'이라고 주장한다 △날개 발달과 치아는 중간종의 증거가 아니다 △수많은 시조새 화석이 사기 또는 조작된 것으로 판명됐다 △파충류와 조류는 해부학적 구조가 전혀 다르다 등이다.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창의교육정책단) 등에도 청원서를 보낼 예정이다. 다음 달 중 포럼 형식의 기자회견과 학술 발표회 등을 열 계획이다.

교진추는 향후 '말의 진화 과정의 모순' '후추나무가 밝은 색에서 검은 색으로 변한 것, 핀치새가 십시 습성에 따라 부리 모양이 달라지는 것' 등 진화론의 잘못에 대해 청원할 계획이다. (15면으로 계속)

한국장로교보수교단총연합회 창립

예정합동 등 33개 교단 참여 "개혁주의 보수 정체성 지킬 것"

보수 색채를 표방한 장로교 연합체가 탄생했다. 예정 합동과 예정개혁(A) 등 33개 교단은 1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한국장로교보수교단총연합회(한보총) 창립총회를 갖고 보수 신앙을 수호하겠다고 천명했다. 창립총회에는 19개 교단에서 167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창립선언문은 "최근 장로교 개혁주의 보수교단의 정체성을 흐르는 일들이 일어나 결집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2014년 세계복음주의연맹(WEA) 대회를 폼파하는 등 장로교 보수교단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들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분연히 일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창립총회는 정관 채택과 사업계

획, 예산심의, 임원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정관에 따르면 한보총은 보수교단 정체성 회복운동, 보수교단 연합, 국내외 선교, 건강한 교회 성장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친다. 이를 위해 신학위, 연합과일지위, 선교위, 이단사기비대책위 등 7개 상임위원회를 두고 활동한다. 한보총은 우선 내년 10월 말까지 상임위원회와 한국장로교100주년기념 사업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앞서 열린 예배는 상임회장 정서영(합동교회 총회장)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설교는 김준규 예정합동전 총회장이 맡았다. 이기창 예정합동전 총회장이 예정대 있었으나 불참했다.

김 전 총회장은 설교에서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가 있음에도

한보총이 결성된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며 "한국교회가 영성을 회복하고 순수한 믿음을 전파하는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정 상임회장은 예배 중간에 한보총 창립이 한창중에서 분리된 모임이라는 항간의 지적에 대해 "한보총은 오래전부터 보수교단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새롭게 설립된 것이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나 한장총에서 분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보총 출범으로 1990년대 장로교단의 기관이었던 한장연과 예정합동회의의 구도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와 2014년 WEA 총회를 앞두고 한국교회가 신학적 노선과 교단주의 등을 앞세워 사분오열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p>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 1부예배: 오후 5:30 주일 2부예배: 오후 8:00 주일 3부예배: 오후 11:00 평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9:30</p>	<p>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재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2:3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p>	<p>금란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p>	<p>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경 주일 1부예배: 오전 7:4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p>	<p>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7:00 주일 4부예배: 오전 9:00 주일 5부예배: 오후 8:00</p>	<p>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광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7:00 주일 4부예배: 오후 5:00</p>	<p>돈돈한교회 담임목사: 정광희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00 주일 6부예배: 오후 11:00 주일 7부예배: 오후 7:00</p>
<p>로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영우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6:00PM</p>	<p>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4:30</p>	<p>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준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 4부예배: 오전 3:0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p>	<p>새연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p>	<p>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7:30 주일 4부예배: 오전 9:00</p>	<p>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록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p>	<p>성일교회 담임목사: 김경곤 주일 1부예배: 오전 5:3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주일 6부예배: 오후 10:00</p>
<p>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정병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p>	<p>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p>	<p>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주일 4부예배: 오전 3:00 주일 5부예배: 오후 7:00</p>	<p>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성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00</p>	<p>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선용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3:00</p>	<p>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미 주일 1부예배: 오전 6:0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p>	<p>안암제일교회 담임목사: 조윤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주일 6부예배: 오후 9:30</p>
<p>양곡교회 담임목사: 서용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주일 6부예배: 오후 9:30</p>	<p>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자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p>	<p>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p>	<p>주안교회 담임목사: 나경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00 주일 6부예배: 오후 9:30</p>	<p>창도교회 담임목사: 최승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p>	<p>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백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2: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주일 5부예배: 오후 9:00 주일 6부예배: 오후 11:30</p>	<p>충신교회 담임목사: 박종순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p>

특별기고

종북, 반미, 좌파, 일명 주사파 사람들의 사대(四大) 원수가 있는데, 죽었다가 깨어도 그들이 용납할 수 없는 원수들입니다.

1. 그 첫째가 미국입니다

종북, 반미, 좌파가 왜 그토록 미국을 미워하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그들을 추종하는 좌파들은 꿈에도 소원이 남한을 적화통일 하는 것인데, 북한공산군이 부산지역까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을 때, 적화통일을 눈앞에 두었는데 미군과 유엔군이 상륙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망설이지 않고 단 10초 동안에 유엔군 파병을 결정하여 한국에 상륙하였으나,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이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여, 해리를 끊어 그들의 퇴로를 차단하여, 우왕좌왕하다가 도주하거나 산속에 숨어 지내다가 빨치산이 되고, 더러는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가 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승려 중에 빨갱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중공군이 들어와 인해전술로 다시 남하하면서 수원지방까지 밀려 내려왔으나 리지웨이(Ridgway, M. B.)장군이 사령관이 되어 한국에 들어와 대 반격작전을 펴서 북으로 북으로 밀고 올라와 종전의 38선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6·25 전쟁기간 동안만 아니라 휴전이 된 후에도 군사적으로 피난민의 양식과 의복을 대주어서 굶어 죽지 않게 하고 얼어 죽지 않게 하여 오늘의 경제 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김정일이나 종북 좌파들은 미국의 '미' 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미워하는 것

훈련장에 학생들이 들어간 것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미국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년 가까이 쫓발 시위를 했던 것입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적화통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주적이라고 하며 미워하는 것입니다.

2.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두 번째 종북, 좌파들의 원수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은 그 유창한 영어실력과 외교술로 미군을 불러들였고, 그의 해박한 지식과 고도의 외교술로 미국 대통령과 장관들을 호령하며 갖고 놀다시피 했습니다. 그 한 예로 인민군 포로 중에 "반공 포로"까지 복송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은 그들을 총살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반공포로들을 석방시킨 것 등이 이승만의 고도의 정치력과 배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공산당의 남침을 격퇴하여 자유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국부로 불세출의 영웅이건만 흠혈귀처럼 미워하는 것입니다.

①이승만은 "아는 것이 힘"이라는 신념으로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대학에서 학사, 하버드(Harvard)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프린스턴(Princeton)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단 5년 동안에 삼대(三大) 명문 대학에서 학위를 다 마친 위대한 실력자이기도 합니다.

②이승만은 대쪽 같은 자로 하늘을 찌를 듯한 기개, 살신성인하는 애국충정으로 독

게 다음과 같은 여섯 마디의 말을 남겼습니다. ①자유민주주의를 지켜라 ②반공태세를 굳게 하라 ③한미 우호동맹을 굳게 하라 ④일본을 만지 말라 ⑤몽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 ⑥다시는 종의 명예를 메지 말라는 여섯 가지 유언 같은 말이었습니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Hawaii Honolulu)에는 "승만리 로드"(Shyng-Man Rhee Road)가 있고, "이승만 기념일"(Shyng-Man Rhee Day)이 있고, "이승만 기념교회"가 있으며, 그의 모교 프린스턴(Princeton) 대학에는 "이승만 기념홀"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념관 하나도 없습니다(제재형씨 글 참조).

종북, 반미, 좌파들이 백범 김 구 선생을 하늘같이 높이는 반면, 이승만 대통령을 흠혈귀처럼 여기며 미워하는 중요한 이유는 6·25전쟁 발발 직전에 김 구 선생은 김일성을 만나고 와서 6·25전쟁 소식도 미리 알고, 공산화 통일을 돕기로 약속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구 선생은 그때만 해도 이승만처럼 공산주의가 얼마나 잔악한 집단인지 모르고, 오직 조국의 분단만을 막으려는 일념에서 동의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김 구 선생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자의든 타의든, 한국은 공산화 통일이 되었을 것이고 통일 후에는 박헌영처럼 사형 당했을 것입니다.

이승만은 죽을 때까지 4·19를 폄하한 일이 없습니다. 우남이 하야하고 이화장에 와 있을 때 대만의 장개석 총통으로부터 위로의 편지가 왔는데 우남은 답신으로 "정의의 사광하는 우리 청년학도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북, 좌파들은 김 구 선생을 영웅으로 받들고 이승만은 장기독재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3. 그다음 원수는 가진 자 "재벌"들입니다

었던 중공에서도 머리가 좋고 지식이 있는 등소평이 실권을 잡은 다음에 선언하기를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가릴 것 없다.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사유재산을 인정한 다음부터 중국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여 미국을 앞지를 정도로 경제 대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거지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10여 년 전에는 일년에 100만 명씩 300만 명이 굶어 죽고, 지금도 엄청난 숫자가 해마다 굶어 죽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동자 합숙소에서 자기 동료들 죽여서 잡아먹고, 나머지를 양고기 팔아먹으려다가 들켜서 감옥에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을 먹여 살리는 재벌이나 사업가들을 시기하고 증오할 것이 아니라, 금메달을 걸어주고 감사패를 수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흠혈귀처럼 미워하며 때려잡고 재산을 빼앗아 먹먹 생각만 하니, 다 빼앗아 먹은 다음에는 누가 돈을 벌여 국민을 먹여 살립니까? 사회주의(Socialism)는 공산주의와 같이 인권을 유린하거나 살인 만행을 일삼지는 않지만 복지정책을 표방하여 모든 재산을 공동의 소유로 하고 골고루 나눠 먹자는 데는 같습니다. 종교를 말살하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부활이나 재림, 천국, 지옥과 같은 내세를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tomb)라고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며,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서로 다투어가며 복지 정책을 펼치다가 국가부도가 나는 상태입니다. 페론(Juan Domingo Peron) 정부가 복지정책을 내세울 때, 처음에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잘 사는 나라여서, 이민 가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갈까? 아르헨티나로 갈까? 하며 망설임 정도였으나, 결국 세계 6위

겔스(Friedrich Engels, 1820-1895)는 "정신은 물질의 생화학적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고, 칼 마르크스는 "신은 필요 때문에 고안된 정신적 허구이다"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in the beginning man created God)라고 하며,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선전합니다. 그러므로 김일성이 공산당 정부를 세우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모든 재산과 토지를 몰수한 것이고, 교회를 파괴하고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는 남한보다 더 많은 교회와 신도들이 있었으나 그 교회들을 다 파괴하고 없애 버렸고 가장 유명한 목사이며 순교자인 주길철 목사가 섬기던 산성현교회 자리에는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김일성의 동상을 세워놓고 수많은 사람이 그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공산주의, 혹은 주체사상이나 종북, 반미, 좌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과 유물론 사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공산주의자들은 그 사상을 주입시키려고(brain wash) 해도 거듭난 신자는 죽임을 당할지언정 세뇌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①사탄을 붉은 용 이라고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했고, 9월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골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라고 사탄을 붉은 용 이라고 했는데, 세상 종말이 가까울 때에, 나탈날 사탄을 의미합니다. "붉은색"은 핏빛이며, 피 흘리는 잔인성을 의미하는 사탄의 사상, 공산주의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공산주의(communism)는 사탄의 사상(Satanism)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종북, 반미, 좌파들의 사대(四大)원수

금란교회 목사 김홍도 목사

니다. 어찌하든지 지금도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그 후에는 전쟁 안하기로 했다는 핑계로 미군을 철수시키고 난 뒤 낮은 단계의 고려연방제로 했다가 적화통일하려는 것입니다.

6·25전쟁 동안 5만여 명의 외국인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버렸습니다. 알지도 못하던 나라,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희생하였고 10만여 명이 부상을 입어 지금까지 미국보훈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토록 고마운 방위국이고, 헬맹국이지만 종북, 좌파들에게는 철천지원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도 싫고, 한미 FTA도 한국경제에 유익한 줄 알면서도 미국과의 무역협정은 싫다는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말도 안 되는 광우병 괴담을 가지고 오랫동안 쫓발시위를 했으나,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다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한미 FTA도 노무현정권 때 다 체결된 것인데 그때 찬성하던 사람들이 말을 바꾸어 안 된다 고 억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를 제일 반대하는데, 모든 나라가 이의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투자자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해서 조정 내지 판결해주는 기구인데, 무엇이 문제되었겠습니까? 미국과의 FTA는 한미동맹이 더 강화될 것이므로 더욱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쇠고기의 근거 없는 괴담과 같이 한미 FTA도 몇몇 괴담이 돌고 있습니다. 상관도 없는 건강보험을 들먹거리며 위내시경 하나 걸친하는데 100만 원씩 받을 거라는 등 괴담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일년 가까이 쫓발 시위하던 효순, 미선 사망 건도 온갖 거짓말을 다 퍼뜨렸습니다. 사령관이 무릎 꿇고 사과했고, 2억여 원이나 보상해주었는데 "사람을 죽여 놓고 60만 원이 무엇이냐, 왜 사과도 안 하느냐"라며 거짓말로 균형을 미혹했습니다. 사실은 전투

림운동을 전개하여 국제회의에서 일본의 잔악함과 침략근성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③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숭상한 지도자였고, 신탁통치와 남북합작론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세우지 않았다면, 오늘의 10대 경제대국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권을 유린하고 살인 만행을 일삼는 공산 정권하에서 굶어 죽어가며,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남(粵南) 이승만은 열사봉공, 근검절약하는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부정축재 한 일도 없어서, 하와이(Hawaii)에 망명해 있으면서, 서울로 돌아갈 준비가 없어서 식생활까지도 절약하며 단 몇 불이라도 아껴 썼다고 합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오스트리아 친정에서 치아 치료받으려고 3,000불 받은 돈을 한국에 와서 달려들 써야 한다고 가슴에 품고 왔다고 합니다. 또 뿔어진 양말도 기워 신었다고 합니다.

④그는 "백성을 사랑함이 나라의 근본(根本)"이란 통치철학을 가진 분입니다. 그는 관1호 대통령 승용차를 극구 마다하여, 사람들은 걸어 다니는 노(老) 대통령 옆에 엎드려 절하며 울기도 했습니다. 4·19혁명이 일어난 까닭을 알게 된 우남은 "백성이 원하면 하야 해야지"하며 경무대를 떠났습니다. 3·15부정선거는 "인의 장막"으로 노 대통령의 총명을 흐리게 하고 장기집권을 획책한 자유당 강경파 무리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 박사가 선거전에 위암으로 돌아가셨고, 해공 신익희 선생도 유세도중 기차 안에서 고혈압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늘이 낸 대통령"이므로 4선에 출마해야 한다고 할 때, 이승만은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남 이승만은 1960년 5월 하와이로 기약 없는 망명의 길을 떠날 때, 허정 수반에

니다.

공산주의(communism)는 말 그대로 "모든 재산을 민중이 공유한다"라는 주의와 사상입니다. 칼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는 1848년 "공산당 선언"에서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여 공장과 기업의 주인인 자본가의 재산을 빼앗아 공동의 소유를 만들자!"라고 선언했고, 이것은 폭력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프롤레타리아, 무산대중이 잘사는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려면 자본가를 때려잡고 국가를 전복시켜야 한다, 이것은 폭력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국가도 계급의 산물이기 때문에 전복시켜야 하는데, 그것도 폭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라고 하면서 공산혁명을 위해서는 "살인, 방화, 파괴,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이나 종북, 반미, 좌파들은 유산계급, 나아가서는 재벌들을, 시기심과 증오심, 복수심을 일으켜 때려잡고 죽여버릴 정도로 재산을 빼앗아 나눠가질 강제로 재산과 공장을 빼앗아 나눠가질 생각만 하기 때문에 전교조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은 재산가, 재벌을 흠혈귀처럼 미워합니다.

그렇다면 재벌과 가진 자의 재산을 다 빼앗아 나눠 쓴 다음에는 누가 돈을 벌며, 국민을 먹여 살립니까? 공동으로 작업하고 공동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과도 오르지 않고, 결국 공산국가는 지상낙원(Utopia)이 아니라, 다 거지토피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공산주의를 집어던졌겠습니까? 양심이 살아있는 흐루시초프(Khrushchov, Nikita Sergeevich)와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가 "이 대로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며 앞장서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거지의 나라

였던 나라가 86위의 거지같은 나라가 되고 말았고, 그리스(Greece)도 경쟁적으로 복지 정책을 내세우다가 국가 부도의 위기에 처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IMF로도 해결될 것이 아니라 "추방"(Deportation) 혹은 "워크아웃"(walk out) 된 것입니다.

이 복지정책을 쓴 나라들은 돈을 많이 찍어내면 될 줄로 알았지만 그 결과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이 지나쳐, 돈이 휴지 찌꺼기 되고 만 것입니다. 생산은 없이 돈만 찍어내면 국가 부도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 나라의 돈은 휴지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재산계급 즉, 돈 벌어들이는 사업가나 기업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강제로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졌다고 생각한다. 부자가 겸손해지는 것이 가난한자가 원한을 갖게 하는 것보다 쉽다"라고 한 것은 명언입니다.

종북, 반미, 좌파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상에 몰들었기 때문에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공짜를 내세워 인기를 얻어 표를 얻는 일을 앞세우나면 그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거두어들여야 하고, 그 세금으로 안 될 때는 돈을 무한정 찍어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되고 그다음에는 화폐가 휴지조각이 되고 맙니다. 결국 늙은이들이 세운 나라를 젊은이들이 무너뜨리고 말게 됩니다.

4. 가장 큰 원수는 기독교입니다.

종북, 반미, 좌파의 가장 큰 원수는 기독교입니다. 네 번째로 언급하지만 사실은 첫 번째 원수입니다. 공산주의(주체사상)도 마찬가지로 효순이 미선이 쫓발 시위 때도 많은 무신론(atheism)이며, 유물론(materialism)입니다. 물질의 존재만 인정합니다. 영

⑤예수님이 사탄 혹은 마귀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잘 설명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말씀에 마귀 사탄은 @욕심쟁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빼앗는 자입니다(요10:10). 공산주의는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요 사탄입니다.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공산혁명을 빙자해 살인 만행을 일삼는 마귀의 하수인들입니다.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히틀러(Adolf Hitler)는 유대인 600만 명을 살해했고 스탈린(Stalin)은 4,500만 명을, 모택동(Mao Zedong)은 6,300만 명을 서슴치 않고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자는 살인자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종북, 반미, 좌파는(주체사상)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쇠고기 파동 때도 효순이 미선이 쫓발 시위 때도 많은 거짓말을 만들었고 한미 FTA 때도 별별 거짓말, 괴담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그들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는 사람, 마귀도 볼 수 없으니 안타깝습니다. 한국에 안티 기독교세력이 강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은 물과 기름이 합칠 수 없는 것과 같고 사탄을 정복하신 예수님을 사탄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대적하는 것은 당연한 현실입니다.

종북, 반미, 좌파들과의 싸움은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푸/른/초/장 (4면에서 계속)

둘째 이유는 미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셋째 이유는 과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첫째 이유부터 살펴봅시다. '눅1:48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들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다' 눅1:49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여기서 마리아는

능하신 하나님이 현재의 자신에게 행하신 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것도 만세에 그를 복이 있다 일컬을 정도로 큰 복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예배한 두 번째 이유는 '눅1:50 공화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노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큰일을 행하신 것은 마리아에게 어떤 자적이나 공로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

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리아는 공화히 풍성하신 하나님께 대대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행하실 큰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하나님께 예배한 두 번째 이유는 앞으로 계속해서 있게 될 미래적인 큰일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게도 큰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나를 공화히 여기시고, 내에

게도 큰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예배한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눅1:51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소셨고' 눅1:52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눅1:53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의 시제가 모두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미 행하신 큰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공화히 여기시고 기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언제나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 늘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열납되는 예배, 곧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한인1.5세 친구들의 회심이야기 (62)



연실적인 이슈 / 유스문화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우리 1.5세 친구들의 회심을 돕는 유스 사역에 있어서 그 현실적인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역자들이 유스문화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하고 배워야만 하는 이슈(Issue of Youth Culture Literacy)에 대해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 1.5세 친구들의 회심을 위한 교육을 할 때 구원과 죄사함과 같은 불변의 진리를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에 적합하고 타당한 사역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문화에 적합하고 타당한 사역이 가지는 강점들, 즉 그들의 문화를 잘 알고 배우고 이해할 때 우리 사역자들에게 주어지는 강점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친구들의 문화에 대해 잘 알고 또 잘 이해하여서 그들에게 적합하고 타당한 사역을 할 때 그 가장 큰 강점은 역시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의 효율성에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 사역자들이 그들의 문화를 잘 알고 이해한다면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리의 메시지를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그들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이번 이슈를 논하는 가장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친구들의 회심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아듣고 이해하도록 돕는 것

로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의 문화에 대해 베테랑이 되는 것은 예방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친구들의 최근의 문화적 트렌드나 유행하는 코드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회자되는 인기 영화, TV 프로그램, 대중가요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들에 대해 미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뭘 알아야 우리 친구들에게 그들의 문화에 대해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가르칠 수도 있고, 옳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우리 친구들 스스로 성찰하고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촉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면 무엇을 지적하고 무엇에 대해 문제제기 해야 할지도 모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대로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설픈게 알아서 그들과 그들의 문화를 터무니없이 오해해서도 안 되고, 피상적으로만 살펴서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의 문화를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이 또 하나의 강점은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친구들과 그들의 부모님들 사이에서 소통의 매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세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들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한국이나 미국의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님들 사이에 존재하는 단순한 세대 차이

문화형성 상황적 배경과 사연, 시사하는 바까지 파악해야 제대로 잘 알아 대화가 통하며 배려를 느낄 수 있도록

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전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좀 과격하게 말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그들이 알아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가르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사역자들이 그들의 문화를 알고 이해하고 배워서 그들에게 적합하고 타당한 교육적 노력을 행할 때 가능합니다.

그들의 문화를 잘 알고 이해하여서 그에 적합한 사역을 할 때의 또 다른 강점은 우리 사역자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사역자들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문화에 대해 존중하고 있으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알아준다고 느끼게 해 줍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사역자들과 자신들이 서로 대화가 통한다는 경험을 하게 되고, 사역자들에게 보다 심도 깊은 신뢰를 갖게 되고, 또한 진정성 있는 관계 맺음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친구들이 사역자들과 그들의 메시지에 마음을 열도록 해줍니다. 귀를 열고 주의를 기울이게 해줍니다. 자연히 전하고자 하는 진리의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

에 더하여 이를 훨씬 넘어서는 극심한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가정들에서 많은 갈등까지도 경험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문화에 베테랑이 된다면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친구들의 신앙과 삶을 성숙시키는 사역에 효과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축복스러운 일을 담보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친구들의 문화를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이 단지 현상적인, 겉으로 드러난 패턴으로서의 그들의 문화를 아는 것을 넘어서 그 문화가 형성된 상황적 배경과 사연 그리고 그 문화가 시사하는 바까지 파악하여 그 사역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문화가 현재의 모습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역자들은 그들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괜히 헛다리를 짚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 위에서 말씀 드린 강점들이 실제 사역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강점들이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의 문화를 잘 알게 되고 이해하고 또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자세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대흥교회)

월 가난한 자 (마11:2-6)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5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이 없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표현하고 있는데(마5:3), 좀더 깊은 뜻을 보자면 자신의 죄와 무능력을 솔직히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은 무가치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을 하나님의 만나로 배부리

막아시고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자들에게 생령의 생수로 목을 축이게 하시며, 영혼의 곤고함으로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는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의 손수건처럼 다가오신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마9:12).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천국의 소망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상실한 이 세상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화 큰 자 (마11:7-11)

11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있어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는 모세나 엘리야가 더 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단지 광야의 외치는 소리였던 반면, 모세나 엘리야는 하나님과 대면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요한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선지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천국을 멀리서 바라보고 예언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세례 요한은 천국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바로 천국을 도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례 요한으로 초라하고 보잘 것 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크고 귀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 엘리야를 본받아 (마11:12-15)

14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는 복음광 이삭리엘의 아홉살 시대의 능력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에 말라기 선지자는 엘리야가 다시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말3:1).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일 줄 알았던 것입니다. 사실 요한은 엘리야였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엘리야가 아니었지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회개케 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엘리야의 심령으로 외치는 소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도 "누가 우리를 위해 갈라"(사6:8) 우리의 대담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회개케 하며 사람들의 심령의 개혁을 이루시라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 무감각 (마11:16-19)

16,17절 비유속의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수 없을 뿐더러 기쁨도 슬픔도 느낄 수 없는 아이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케 하려도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선포해도 무감각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세대도 당시 예수님 세대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눈물이 없고 이웃과 함께 기뻐할 줄도 모르는 무감각한 세대입니다. 또한 이 세대는

이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무감각해져서 죄를 짓고도 그 죄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기뻐할 줄 모릅니다. 무감각한 이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살았다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예3:1)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이웃의 사랑을 돌보며 우리의 신앙의 감각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금 책임있는 신앙 (마11:20-24)

21-24절을 보면 고라신과 벳새다가 두로와 시돈보다 더 엄청난 심판을 받을 것이며 가버나움도 소돔보다 더 중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의 죄악은 예수를 알지 못했고, 그의 능력을 보지 못해서 지은 죄라고 치더라도 고라신과 벳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예수를 알고 그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믿지 않았고, 따라서 고라신과 벳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은

그 성도들에게서 행한 예수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열리지 않고 예수를 따라 의의 길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더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신 후 복음을 들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이전의 성도들보다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늘 감사히 여기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책임을 다하는 복된 삶 사시기 바랍니다.

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마11:25-30)

25절,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천국 비밀의 진리를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시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종종 어린아이들을 높이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질 상반절에 나타낸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탐욕이 없으며 진실

하고 겸손한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늘 부모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심령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경조주 앞에서 유한한 피조물인 뿐인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 겸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고난과 시련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천국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2면 "시조새"에서 계속)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1859년 출판한 지 2년 뒤에 발견된 시조새는 날개와 깃털을 가졌지만 치아나 뼈조각이 등 새와는 많이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 공룡으로부터 조류로 진화하는 동물의 가장 확실한 표본으로 여겨져 왔다.

현재 국내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는 "중생대의 대표적인 생물은 파충류였으며... 그리고 시조새도 출현했는데, 이 생물은 파충류와 조류로 진화해 가는 중간 단계의 생물로 여겨진다"(더 텍스트 pp198-199)고 기록돼 있다.

그러나 최근 몇몇 사이 넷째와 장사골(暢思骨) 등 새와 비슷한 특징을 갖

춘 더 오래전의 유사한 화석들이 발견되면서 '시조새가 과연 새인가' '시조새가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종인가'라는 의문이 잇달아 제기됐다.

교진추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학문적 흐름을 외면한 채 종전의 잘못된 내용을 교과서에서 계속 가르친다면 학생들이 왜곡된 내용을 사실로 알게 되어 그들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실제로 교과서에 수록된 생물 진화와 관련된 상당 부분의 내용들은 말년에는 150년이나 되는 진부한 내용들로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현행 교육제도 하에서 다윈의 진화론이 정설이라고 가르치고 있

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선교지 편지
(14면에서 계속)

지금 상황이 오히려 저에게는 호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영적전쟁이 새로운 상황과 각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적전쟁을 수행하는 선교사역과 선교사에게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대로 기도와 물질후원을 계속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초의 선교지이며 최후의 개척지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IMS선교회 대표선교사 서병길 목사
▲연락처: (213)404-1583

365Revival.com

365Revival.com

귀하고 귀한 교회예산-
단 1불이라도
아껴드립니다

사역의 압축, 절감-
단 1%이내로
줄여드립니다

가격과 품질의 양날개로 여러분의 미디어 사역을 떠받쳐 드립니다

김보라 새생명교회, 나성 복무교회, 남가주 사랑의교회, 남가주 침례교회, 노스웨스트 장로교회, 남가주 한인 장로교회, 대흥장로교회, 동부 사랑의교회, 동문교회, 드림교회, 로고스 장로교회, 만나교회, 폰트레이 비전한국교회, 미주 중앙교회, 메릴랜드 장로교회, 브러지교회, 샌디에고 아메리칸교회, 성원한국교회, 세계성도교회, 세계로교회, 시애틀 영적교회, 시애틀 연합교회, 아메리칸교회, 아메리칸교회, 알버틴 영적교회, 에브리데이교회, 에셀교회, 은혜한국교회, 은혜한국교회, 인랜드교회, 주님이 함께하는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 제임장로교회, 토렌스 조은교회, 텍사스 한인장로교회, 팔라다도교회, 하노이 커뮤니티 교회, 하비 성산교회, BIOLA UNIVERSITY, CROWN FINANCIAL MINISTRY, CONCORD UNIVERSITY, FAITHANDWORKLIFE.ORG CALVARY CHURCH, SADDLE BACK CHURCH, KINGDOM BUSINESS ADVISOR GROUP, REVIVALATWORK.COM, R@W, BUSINESS AS MISSION, FmC, ITMC, PGM, ENJOY&TV, HQM, SILK WAVE MISSION, ThatsMeonTV.com, KBS, MBC 등 항상 생애주선 많은 교회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365Revival.com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변하지 않고 최저가격, 최고품질로 여러분의 미디어 사역에 온전한 남기가 되겠습니다.

한 영혼도 소홀히 할 수 없기에...
불량을 0%를 지향하는 정품만을 공급합니다

불량을 1%미만의 Philips로부터 Pro Disc, Ritek, Verbatim, Falcon, 불량률 0.05%미만의 Taiyo Uden, Optical Quantum까지 세계 최고 브랜드의 정품 CD-R, DVD-R, DVD-RW를 중간대신 없는 **출세일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Philips 공CD-R: 13.60¢부터)
- Blank, Inkjet Printable, Pre-printed/타입 등 모든 종류의 미디어 공급
- 24시간 무료배송: 남가주 전역(450여개 주문시)
- 미 전역 신속배송: UPS, USPS Ground Service(타주 주문시 먼저)

Special CD/DVD 제작 서비스
특별제작/부호화/명사/시리즈 표고
동음 변환/보너스 주시권/표지, 제작,
배치, 표지 디자인까지
필요할 수문의 판매용 샘플로 제작해드립니다.

중소형 회사를 위한 획기적인 솔루션
혼자서 CD/DVD 복제는 물론 라벨 인쇄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는 Epson 디스크 프로듀서가 선과, 전양 CD는 물론, 특별DVD까지 수중에 관계없이 고품질의 모든 디스크복제와 라벨인쇄를 책임집니다. 단가 \$2,695(회원 특별할인가: 전화 문의 요청)
365Revival.com의 Special Offer를 받으셔서 매일 새롭게 제공되는 푸짐한 할인혜택과 특별선들을 확인하세요.
예산절감 + 인력절감, 일당백 만능 해결사-
EPSON 디스크 프로듀서
- All-in-One: 자동CD/DVD Duplicator + Label Printer
- 명사자가 부족한 교회에 인성맞춤
- 자유로운 수량조절로 5-400장의 디스크 복제에 적격
- 빠른 속도: Label Print 시 60-70장/hr, Label Print + CD Dup 시 40-45장/hr
- 효율적 케블 링크 절감기능으로 낮은 유지비 및 운영비
- **원터치로 100장까지 무인 자동 CD/DVD복제 및 라벨인쇄**
- 간단한 라벨인쇄 다양한 템플릿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가능

최상품의 모든 Media Supply 완벽 구매!
Labels, Sleeves/Paper, Color, Clear Plastic!
CD/DVD Cases, Matlens, Envelopes, Inserts, Hubs
Revival 멤버십 실시! 모든 미디어 및 서플라이 구입시 3% 할인
빠르고 저렴한 CD/DVD Duplicators
정품용 중 가장 빠른속도
가장 낮은 가격에 최상품의
E7 Enterprise급 제품
- 원터치로 자동인쇄
- 최상급 정품용
- 신속한 A/S 및 케블링 제공
실용 CD/DVD/Duplicator & Media supplies
365Revival.com
FAITH & WORKS Media Corporation
OC/SD/BAY 1221 E. Dyer Road Suite 290, Santa Ana, CA 92705
LA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INLAND 20635 Valley Blvd, Bldg. A, Walnut, CA 91789
24시간 직통: 213-985-3088 / 949-742-2600

인/터/뷰

김태오 목사, 사라김 사모, 한동희 집사

동성애 관련법안 반대 앞장선 Christian Coalition for Korean & Foundation of TVNext

“불난 미국에서 상한 밥 먹이지 마라”

“먼저 동성애교육법안인 SB48법안 폐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교회와 한인유권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세대를 위한 가치관보호를 위한 Christian Coalition for Korean & Foundation of TVNext(이하 TVNext)의 사라김 사모. 그는 TVNext에서 함께 섬기고 있는 남편 김태오 목사와 한동희 집사와 함께 이번 SB48 저지운동에 적극 참여한 한인유권자들과 교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동성애옹호론자들은 이번에 통과된 SB48을 날이 갈수록 미국의 법과 사회 규범까지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TVNext를 통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미국을 바로 세우는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뜻 있는 분들과 함께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사라 사모는 SB48법안 통과로 내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교과서에 동성애관련 교육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개악된 내용이 실려 나오는 시기는 2014년경부터입니다. 그러나 법이 통



SB48저지운동에 앞장섰던 TVNext의 김태오 목사(우측) 사라김 사모 그리고 한동희 집사

또 그는 한인교회가 있어서 2세 목회자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즘 교회들은 리더십이 교체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1세의 리더십에서 1.5세 리더십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서는 이미 2세 목회자들의 지도 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서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도 그들은 동성애에 대한 생각은 개인적 이슈로 생각합니다. 즉 왜 교회에서 개인의 권리를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야 하냐고 의문을 가집니다. 이런 비성경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세 목회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거나 가르치

“DOMA의 위기상황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DOMA를 무너뜨리려는 법안이 상정이 되어있고요. 내년에는 성전환자 즉 트랜스젠더에 대한 법안도 상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은 어떠한 성관계도 괜찮다는 법안이 나올 것이고요. 예를 들면 근친상간을 들 수 있겠지요. 4촌 이내 결혼은 물론 부모와 자녀간의 결혼도 가능한 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동물과의 성관계도 합법화 하는 움직임도 예상할 수 있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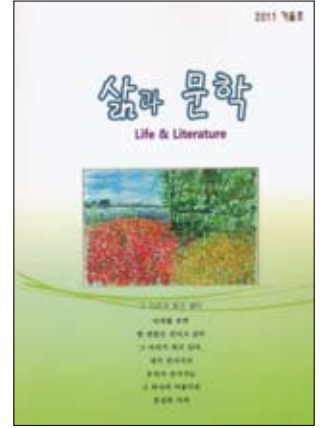
사라 사모는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서 동성애가 합법화 된 이후 그룹섹스도 합법화가 됐다고 전했다. 미국역시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면 타락한 유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추진 중인 의료개혁법 역시 개혁이 아닌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의료법에는 낙태가 합법화돼 있으며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낙태를 시키는 즉 국민이 어린이를 살해하는 끔찍한 짓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의

새책 소개

“삶과 문학”

발행인 곽상희 권사(시인)



시인 곽상희 권사(프라이미스교회)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삶과 문학” 2011 가을호가 최근 출간됐다. 곽 시인은 지난 28일 가진 출판 기념회에서 “이민자들의 삶을 문학으로 열매 맺도록 하기를 희망한다”며 “삶과 문학”이 1년 1회 발간되며 뉴욕과 미주, 한국 등에서 모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곽 발행인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한 시대를 알기 위해서는 문학을 이해해야 한다”

이민문학의 정신문화 기틀 세우는 다리로

며 이민사회 문학이 아직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했지만 시대의 “수맥이 되려는 꿈으로 우리의 숨결을 모았다”고 발행인 편지에서 밝혔다. 또한 앞으로 근본과 미래를 갖춘 보다 온당한 모습으로 이민 정신문화의 기틀을 세우는 다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썼다.

책은 발행인 편지 ‘서정과 지성의 등불을 들고’를 비롯해 휘트먼의 시때론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이가림의 초대시(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등과 ‘평론’, ‘신작시편’, ‘시’, ‘영시’, ‘동화’, ‘교육’, ‘우리의 차, 김치문화’, ‘수필’, ‘음악’, ‘영시감상’, ‘개척기 이민사’, ‘기독교’, ‘상당사례’ 등의 항목으로 나눠 40명 필자에 의해 총 234페이지에 수록돼 있다.

곽 발행인은 이번 호에 “낯설음의 정복”이라는 평론을 수록했다. 이 평론은 미주이민 100주년 기념 문학세미나 강연초(2003)를 바탕으로 해서 쓴 것이다.

곽 발행인은 ‘다리가 되기를 강조하면서 책 표지에 ‘그 다리가 되고 싶다’를 적어 넣었다. “다리를 보면/한 번 좁은 건너고 싶다/그 다리가 되고 싶다/내가 건너가고/우리가 건너가는/그 하나의 아름다운/튼실한 다리”

▲연락처: sangheekw@yahoo.com (유원정 기자)

동성애·SB48 법안, 2세시역자에겐 부정적...바른 성경적 가치관 확립 우선

트랜스젠더보호법안도 상정...유럽, 동성애합법화 후 그룹섹스 허용 등 확대

과된 이상 교과서 변경과 상관없이 내년 1월부터 모든 공립학교에서 동성애도 좋은 것이라는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건강한 가정 제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맞서 지난 11월 16일 새크라멘토에 있는 주정부에 두 가지 법안 SB48을 전체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Repeal 48과 자신들의 아이들이 신앙 때문에 동성애관련 교육을 배우고 싶지 않다면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Parent Right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두 법안은 45일후면 받아들여졌는지 결과를 알 수 있다.

김태오 목사는 이번에 SB48 저지운동을 하면서 사회 흐름에 대한 교회 짐목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자들이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미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를 하는 동안 교회는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이슈나 흐름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고 교회가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가치를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녀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세 목회자들의 가치관과 신앙관, 그리고 도덕관들은 거의 검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한인교회에서 2세 목회자들을 채용하는 이유는 바로 영어권인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영어를 편하게 구사하는 2세 목회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2세가 필요하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 검증절차 없이 채용하는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2세목회자들이 동성애에 대해 어떤 생각 가지는지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교회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가치관은 그들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가치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사람만 좋다고 해서 가치관까지 성경적일 수는 없으니까요. 아이들은 그들을 지도하는 목회자와 교사의 가르침을 여과없이 받아들입니다. 많은 사례를 볼 때 불행하게도 동성애법안이나 SB48법안 등은 2세 목회자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다가옵니다. 가정을 보호해야 하는 이슈이고 하나님의

가나 멘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이 한인교회들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동성애 이슈들에 대해 접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상할 때 가장 시급한 것은 특정한 지역 특정한 대상을 놓고 다가가기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타깃을 정할 때 담임목사, 부목사, 교육목사 등 목회자를 향한 접근과 교회 중직자 교사들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스텝과 교사교육, 학부모에 대한 교육, 그런 것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들에게 닥친 시급한 문제에 대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란 정신이 깃들여져 있는 도마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즉 DOMA(The Defense of Marriage Act)가 무너지면 모든 동성애 관련 법안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SB48법안 통과시킨 상원위원이 새로운 법안을 몇 개 더 올렸다. 동성애자를 위한 법안은 물론 트랜스젠더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 등을 들 수 있다.

길을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동희 집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를테면 각종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것과 말씀과 기도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아이들을 부모가 지은 밥을 먹고 산다. 그러나 그 밥이 상한 밥이면 배탈이 나게 되며 밥을 하지 않으면 굶게 된다. 마찬가지로 현재세대가 어떤 밥을 하느냐에 따라 다음세대가 물려받게 된다. 따라서 좋은 음식을 먹이느냐 불량식품을 먹이느냐가 관련”이라 말했다.

사라 사모는 “현재 미국이라는 집에는 불이 난 상태이다. 집에 불이 났으면 불을 꺼야 하듯 불이 난 미국은 당장 불을 꺼야 한다. 또한 교회의 사명은 교회 안에서 뭔가를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메일: tvnext.org@gmail.com (박준호 기자)

축제같은 예배! 신바람 나는 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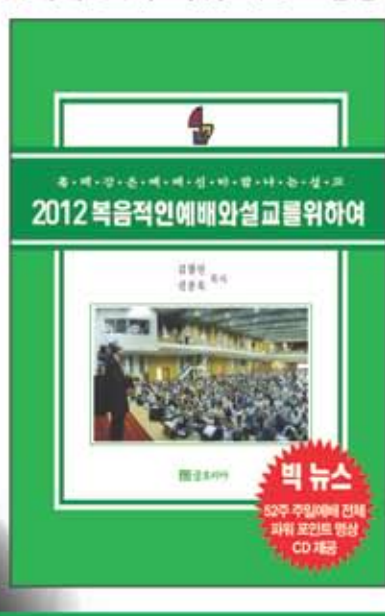
한국교회정보센터

김향안 목사가 목회자들에게 드리는 신바람 목회의 부식돌!

교회력에 따라 만들어진 1년 52주 주일예배와 특별예배를 위한 설교와 예배 가이드 북

복음적인예배와 설교를 위하여

- 김향안 선종목 목사 공저 ● 바인더(A5)/282쪽 ● 가격 : 19,000원
- 부록: 52주 주일예배 전체 파워포인트 영상 CD 제공



성탄카드 대신에 보내 드리는 마음의 책

- 김향안 목사 저
- 판형 : 4×6판 / 80쪽
- 가격 : 2,800원
- 우편 봉투 내장



올 성탄절에는 카드 대신에 “성탄 카드북”을 보냅니다.

김향안 목사가 20년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전하는 성탄절 문화의 새 반향! Why Christmas? 왜? 크리스마스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가? 왜? 수많은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예수의 탄생을 경축하는가? 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성탄절을 축제에 한 마당으로 만들어 가는가? 왜? 그렇게 많은 풍습과 전통들이 만들어 지는가? 왜?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하는가? 여기 그런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성탄 카드 대신에 보내드리는 마음의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신바람 나는 송구영신 예배를 위하여

- 송구영신 예배를 위한 실제 프로그램 7편
- 송구영신 예배를 위한 설교 46편
- 송구영신 예배를 위한 예화 127편
- 판형 : 신국판 / 416쪽
- 정가 : 10,000원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카드 실제모습]

- 200개의 다양한 말씀과 그림
- 교회주소, 전화, 이름 등 인쇄
- 코팅과 함께 리본 제공
- 송구영신 예배를 위한 자료 제공
- 200성구에 대한 심방설교 제공
- 주문 수령만큼 ‘책갈피’ 제공



은혜스러운 송구영신 영상비디오

- 한화, 김동, 소망 결단기 있는 영상비디오 & CD

www.kcdc.net 824-3004, 5004